

교육연합신문



2026년 11월 4일 (수) **제454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 ▶5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육 주체(학부모·시민)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6년 제2회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을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중구…



학교탐방-부산 대광고등학교 ▶8-9면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한 곳이 〈누적 특허 등록 100건, 특허 출원 2,180건, 학생 발명아이디어제안 1만 9,351건〉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쌓았다. 2007년 교육부와 특허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체고, 전국체전서 최고 성적 ▶11면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윤강)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20개 종목, 196명의 학생 선수단이 금메달 9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6개 등 모두 3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명지신도시 중학교 과밀 해소해야"

부산북부교육지원청 학교학부모연합회, 북부교육지원청에 공식 요구서 제출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의 중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신설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학생 배치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7학년도 명지3중 개교를 앞두고 기존 학교의 과밀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학부모연합회 최훈기 회장과 임원진, 명지지역 학부모들은 지난달 14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2027학년도 부산 강서구 국제신도시 중학교 과밀해소 및 균형배정을 위한 학부모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요구는 2027학년도 명지3중 신설을 계기로 기존 명지중학교와 경일중학교의 과밀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내 세 학교의 수용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생배치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학교 신설은 늘어나는 학생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학교가 새로 문을 연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학교의 과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과밀 해소 여부는 학교별 배정 학생 수와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육시설의 수용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명지지역 학부모들은 기존 중학교의 과밀과 관련해 급식시간 운영 부담, 전교생이 참여하는 교내행사 진행의 어려움, 과학실·음악실·미술실 등 특별실 이용 제약, 학생 개별지도와 생활지도 여건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부산북부교육지원청 학교학부모연합회 최훈기 회장과 임원진이 북부교육지원청 민원실을 방문해 중학교 과밀 해소 및 균형배정을 위한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고,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생활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에 학부모들은 명지3중 신설이 지역 내 학교 수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의 핵심은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기피가 아니라 학생들이 배정 결과에 따라 교육환경에서 불합리한 차이를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다.

학교마다 시설 규모와 교육활동 공간, 급식시설 등 수용 여건이 다른 만큼 학생 수를 단순히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적정한 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별 수용 가능 인원과 학급당 학생 수,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측은 "특정 학교를 선호하거나 기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아이들이 적정한 학급 규모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균형 있는 학생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학교 간 학생 수를 맞추는 문제를 넘어 지역 내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습환경과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부모 측에 따르면, 앞서 교육지원청에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계획 확정 전 학부모 의견수렴과 교육지원청 간 공식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당국은 학생배치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교별 예상 학생 수와 학급 편성 계획, 시설 수용 여건, 통학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배정기준과 계획 수립의 근거를 설명한다면 학부모의 불안과 학교 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학부모연합회와 명지지역 학부모들은 이번 요구서 제출을 계기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계획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명지3중 신설이 단순한 학교 수 증가를 넘어 지역 전체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교육당국이 학교별 수용 여건과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어떤 배정계획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난희 기자 hnh@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대성여고 고3 수험생 격려

"마무리 학습 등 실력 발휘" 당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 갖고 의견 청취도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대성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대성여고 3학년 교실을 찾아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와 마무리 학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과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 방안, 일반고 입시지원 내실화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성여고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AI·디지털 활용수업 선도학교, STEAM 클럽학교 등 특색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박람회와 맞춤형 진로설계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학 준비도 지원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건강을 잘 챙기고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서울교육청-조국혁신당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해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공동 대응… 교직원·학부모 참여 국회 토론회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30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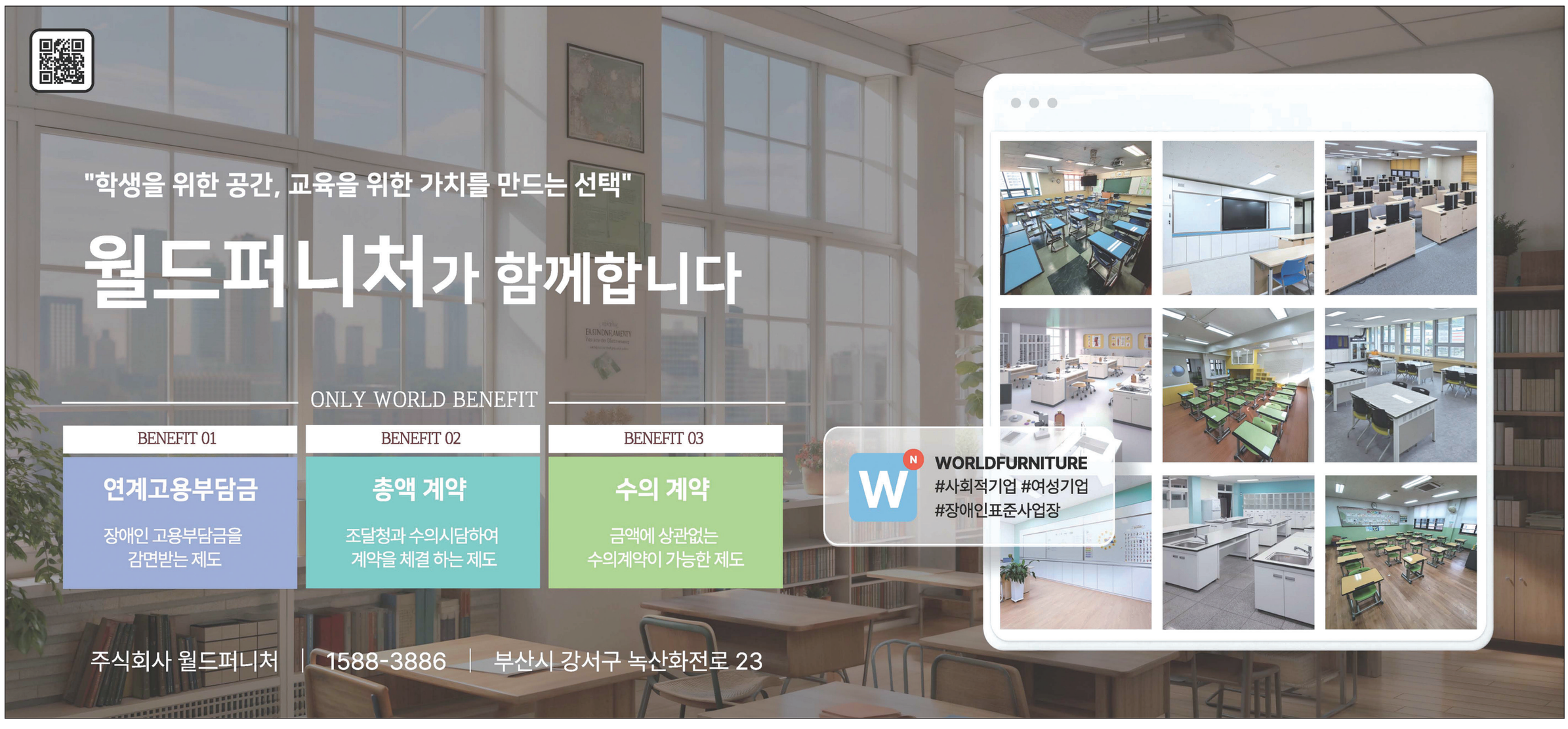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월 3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 강경숙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등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지방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단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접근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 개편안이 재정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교육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재정 운용과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교육·돌봄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국회 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은 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협의·개최하여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교육감協 "교부금법 개정안, 충분한 논의 필요"

정근식 회장 등 교육감 7명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 "정부·국회·교육계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10월 19일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예방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윤건영(충북), 권순기(경남), 강은희(대구), 도성훈(인천), 조용식(울산), 강미애(세종) 교육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추진에 따른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법률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초·중등교육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투자 확대라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제도 개편인 만큼,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정 논리만으로 제도 개편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책임 있는 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성장의 밑바탕에는 늘 교육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AI를 비롯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교 현장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교육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 가능한 공교육 발전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社 說

변종 학교폭력 '야차룰', 솜방망이 처벌로는 폭력의 고리 끊을 수 없다

최근 맨몸으로 잔혹하게 싸우는 신종 학교폭력인 이른바 '야차룰'이 확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해 학생 조치의 대다수는 여전히 경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신종 학폭 심의 중 신체 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했음에도 전체 조치의 78%는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학교폭력의 형태가 날로 흉포화·은밀화되는 상황에서, 안일한 처벌 관행은 학교를 또 다른 사각지대로 내몰 뿐이므로 당국은 더욱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엄벌이 요구되는 이유는 변종 학폭이 단순한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넘어 심각한 범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야차룰' 같은 신종 폭력은 또래 간의 호기심이나 일탈로 치부하기엔 피해 학생에게 남기는 신체적·정신적 상흔이 너무나 깊다.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이를 놀이 문화처럼 소비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더욱 지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진화해 결국 학교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중형이나 학생부 기록 등 가혹한 낙인을 찍는 것이 능사무탈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청소년 시기의 과오에 대해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우선 부여해야 하며, 사법적 잣대나 과도한 징계가 오히려 학생의 사회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반발심을 키워 교육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화와 선도는 명확한 책임 추궁과 진정한 반성이 전제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에 합당한 제재와 반성 없는 관용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는커녕 걸려도 그만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경고로 오인되어 가해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한 채 가해자의 낙인 효과만을 우려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시각이다.

결론적으로, 흉포화되는 신종 학교폭력 앞에서는 온정주의적 처방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은 '야차룰'과 같은 변종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을 내리고, 가해 학생에게는 철저한 책임 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피해 학생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둔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광주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평가 'ALL PASS'

기초학력 보장 강화 등 17개 지표 모두 통과… 특별교부금 7억 5천만 원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실시한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모든 지표가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서 'ALL PASS'의 쾌거를 이뤘다고 10월 29일 밝혔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는 주요 국정과제 및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해 4개 영역, 17개 지표로 나눠 진행되며, 모든 지표의 기준을 통과하면 'ALL PASS'를 받는다. 평가 기간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이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 등 17개 정량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했다.

특히, 통합 전에 이뤄진 정성평가 분야에서 전국 시·도별로 각각 4편씩 선정되는 우수사례에 전남과 광주지역 모두 포함됐다.

전남은 '학교 AI 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으로, 광주는 '사교육비 경감 추진 노력 및 성과'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학교 AI 교육 강화'분야에서는 2030(AI)교실 및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이, '사교육비 경감 추진 노력' 분야에서는 광주형 전문 입시상담 체계 구축 등 사교육 시장 안정화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의 경우 이번 ALL PASS로 3년 연속 지표 통과의 기록도 세웠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ALL PASS 선정과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특별교부금 7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자체적인 평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량·정성평가 지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목표 달성을 위한 상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지표별 맞춤형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받는 전남광주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한국교총 특별공로상

30여 년간 교원 권익 신장과 교권 확립에 헌신… 교육계 발전 공로 인정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관 단재홀에서 열린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간담회 및 특별공로상 시상식'에서 한국교총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특별공로상은 조 회장이 30여 년간 교육 현장과 교원단체에서 활동하며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 교원단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한국교총은 상장을 통해 "조 회장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 교원단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한국교총 부회장과 이사, 전국교총협의회 회장, 한국교총 교육부 교섭대표, 한국교육신문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며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특히 교원단체의 주요 현안과 교육정책 협의 과정에 참여하며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 교직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및 운영위원, 대통령자문 국정과제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교육정책 발전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했다.

부산 교육계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부산교총 회장을 연임한 것을 비롯해 부산교총 평교사 부회장과 관리자 부회장, 부산 사립교장회 회장, 교원지위향상 심의위원 등을 맡아 교원들의 권익 향상과 교직단체의 위상 강화에 힘썼다.

학교 현장에서는 부산 동아중학교와 동아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에 헌신했다.

아울러 동림학원·석파학원·서원학원 이사로 활동하며 사학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퇴임 후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고 있다.

조 회장은 전국 시·도 교총 회장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 회장을 맡아 교권 확립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한국교총 특별공로상 수상은 30여 년간 교육 발전과 교원 권익 신장에 헌신해 온 조 회장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의 본질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윤영 기자 juy@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가)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영남본부 054-273-3336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26-0119 부산지사 051-711-1444 제주지사 1522-116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업탐방

고감한지엔페이퍼, 가업 3代 한지로 세계를 잇다

전통 한지 현대화·세계화 이끈 백철희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전북 전통 한지 기업 고감한지엔페이퍼(대표 백철희)가 3대에 걸친 가업승계와 한지의 현대화·산업화·세계화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40여 년간 한지 제조업 한 우물을 판 백철희 대표의 걸음에 주어졌다. 전통 수제 한지의 한계를 넘어 현대 산업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해 전통 한지산업의 대중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점이 평가받았다.

고감한지엔페이퍼는 1982년 천양제지공업사로 출발해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한지 제조·유통 전문기업이다.

대량 생산 체계와 수도권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용도별 맞춤형 한지 제품인 '지멋대로', '씨감', '머그라지' 등을 공급한다. 특허 기술력과 벤처기업 인증을 앞세워 미국 아마존과 유럽 시장 등에 우리 전통 한지를 수출하고 있다.

뿌리는 백 대표의 부친 고(故) 백준선 선생이 세운 작은 제지 공방이다. 한지를 한 장 한 장 떠내던 그 공방이 40년 넘게 이어진 가업의 출발점이 됐다.

백철희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천양제지 전무이사로 현장을 지켰다. 이 시기에 한지의 전통 초지 기술과 경영 전반을 몸으로 익혔다. 2008년 천양산업을 설립했고, 2011년 상호를 '고감한지엔페이퍼'로 바꾸며 독립 경영과 가업승계를 완성했다.

가업은 이제 3대로 이어지고 있다. 경영학을 전공한 백 대표의 딸이 최근 합류해 미국 아마존 온라인 매장 운영과 해외 수출 실무를 맡고 있다. 선대가 쌓은 전통 제조 기술에 현대적 브랜딩과 글로벌 유통 경쟁력이 더해지면서 '3대 42년 가업승계 성공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수공업의 한계를 넘다

백 대표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생산 방식이었다. 기존 수공업 중심의 영세한 생산에서 벗어나 대량 생산과 품질 균일화를 이루기 위해 연간 약 100톤 규모의 한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급 생산 인프라를 갖췄다.

한지를 서예용 종이에만 가두지도 않았다. 백 대표는 현대 산업 수요에 맞춰 용도별 맞춤 브랜드를 만들며 시장을 넓혔다.

인쇄용 한지 '지멋대로'는 인쇄 적성을 크게 끌어올린 제품이다. 산업·포장용 한지 '씨감'은 산업 및 포장재 시장을 겨냥해 내놓았다. 건축·인테리어와 조형 예술 분야에서는 아트한지 '머그라지'가 활용된다. 서예용 종이로 알려진 한지가 인쇄물과 포장재, 공간 디자인까지 쓰임새를 넓힌 것이다.

과감한 제품 다각화와 전국 단위 유통망, 전문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힘입어 매출도 꾸준히 올랐다. 2021년 17억 1100만 원, 2022년 20억 3400만 원, 2023년 21억 원으로 늘었다. 전통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숫자로 보여준 셈이다.

■ 특허와 인증으로 쌓은 기술 경쟁력

기술 투자도 이어갔다. '인쇄성이 향상된 데클엣지 한지라벨지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고, 무명천 한지 시트지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통 소재의 기능성을 끌어올리는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다.

기반도 하나씩 갖췄다. 2022년 7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고, 2023년 4월 벤처기업 인증과 9월 ISO 14001 환경경영인증을 얻어 품질·환경 경영체계를 완비했다. 2024년에는 정부조달업체로 지정돼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할 발판도 마련했다.

■ 아마존에서 유럽까지, K-한지의 영토 넓히다

해외 시장 개척도 두드러진다. 2019년 스페인 파트너사와 거래를 시작한 데 이어, 2020년 9월 미국 아마존(Amazon US)에 정식 입점하고 미국 특허청에 자사 브랜드를 등록했다. 이후 스페인, 모로코, 독일 등으로 수출망을 넓혔고 2021년에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

고감한지엔페이퍼의 한지는 2016년 남북정상회담장인 판문점 평화의집에도 쓰였다. 전통 한지벽지와 창호지를 공급·시공해 한민족 고유의 품격과 전통 건축미를 세계에 알렸다.

■ 한지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위한 발걸음

백 대표는 회사 밖에서도 한지의 미래를 가꿨다. (사)한지문화진흥원 이사, 아름다운한지협동조합 이사장,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 기능경기대회 기술·심사위원 등을 맡으며 전통 한지 생태계 보존과 장인 육성에 힘썼다.

(재)희현장학회 이사로 인재 양성 장학 사업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도 꾸준히 실천했다. 이런 공로로 '전북천년명가'와 '백년소공인'에 연이어 지정됐다.

■ "한지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미래 소재"

백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공을 주변에 돌렸다. "이번 표창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한지 제조 현장을 지켜 온 임직원들과 선친의 장인정신, 그리고 가업을 함께 잇고 있는 가족 모두의 땀방울이 맺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백 대표는 "한지는 과거의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인쇄, 친환경 포장, 건축 인테리어, 생활용품 등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지닌 미래형 친환경 소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백 대표는 "'한지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라는 비전 아래 연구개발과 디지털 글로벌 플랫폼 확장을 지속해, 전북의 전통 한지가 글로벌 명품 신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가업이 이어지는 곳에 전통도 이어진다

종이 한 장을 뜨던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시작해 아들이 현장을 배우고 독립 경영으로 키웠고, 이제 딸이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한 가족이 3대에 걸쳐 지켜 온 시간이 곧 한국 전통 한지의 맥이 이어져 온 시간이다.

한지가 박물관 속 유물에 머물지 않고 인쇄물과 포장, 인테리어를 거쳐 해외 소비자의 손에 닿는 지금, 고감한지엔페이퍼의 42년은 전통이 어떻게 오늘의 산업으로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답이 되고 있다.

김병선 기자 kbs@

부산 남구 아파트연합회, 박수영 국회의원에 감사패 전달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 300회 기념… 6년간 이어온 주민 소통·지역발전 노력에 감사



왼쪽부터 양호승 GS하이츠 감사, 남기득 데시앙 해링턴 플레이스 전임회장, 김신곤 더블유 회장, 김현주 GS하이츠 전부녀회장, 이춘식 회장, 박수영 국회의원,노택균 부회장, 김문성 오륙도 SK뷰 전임회장, 김상석 이사,허청 사무총장. 사진=남아연 연합회 제공

부산광역시 남구 아파트연합회(회장 이춘식)는 지난 10월 31일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에게 주민 소통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박 의원이 지난 6년간 매주 토요일 운영해 온 주민 소통 프로그램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가 300회를 맞은 것을 기념하고, 주민 생활 민원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는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프로그램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생활 민원 해결에 힘써 왔다. 특히 부산항선 트램 추진, 금융자사고 유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남구의 교통· 교육·금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300회에 이르는 주민과의 만남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감사패 전달에는 부산 남구 아파트연합회 이춘식 회장을 비롯해 노택균 부회장, 허청 사무총장, 김상석 이사가 참석해 박 의원의 주민 소통 300회 달성을 축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춘식 회장은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 300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난 6년간 주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소통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토요일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생활 속 불편 사항부터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안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박수영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 정치권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더욱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오규 기자 hog@

영산성지고, 도서관을 점령한 책벌레들

학교 도서관 활성화·책 읽는 분위기 조성



영산성지고등학교(교장 전치균)는 2026년 한 해 동안 운영한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청소년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으로 영산성지고는 학교 도서관 활성화와 교내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펼쳐 왔다.

'1318 책벌레 리더스'가 중심이 되어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가까이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썼다. 올해는 ▲학교 도서관 보물찾기 ▲영광교육지원청도서관 사서 체험 ▲작가 초청 북콘서트 ▲인문학 강연 ▲교내 독서문화 행사 ▲지역사회 연계 독서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독서 경험을 제공했다.

먼저 학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보물찾기'를 진행해 학생들이 도서관 곳곳을 탐색하며 책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영광교육지원청도서관을 방문해 사서의 역할과 도서관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도서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4월에는 '못갖춘마디'의 채기성 작가를, 10월에는 '강원국의 진짜 공부'의 강원국 작가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사전에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질문을 준비했으며, 작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독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독서문화 기획자 권인걸을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진행했으며, 영광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야수다' 인문학 강연에 참여해 이정모 관장과 이금이 작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 속 지식을 삶과 연결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혔다.

독서의 즐거움을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전하는 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교내 '온가족 행복마당' 축제에서는 책벌레 리더스가 직접 '책 읽어주세요' 부스를 운영하며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독서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책을 읽는 즐거움을 넘어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 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며 독서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1318 책벌레 리더스로 활동한 2학년 여진송 학생은 "예전에는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나도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친구들과 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직접 독서 행사를 운영하면서 책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책벌레 리더스로 활동하며 평소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영산성지고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 참여를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도서관을 독서 공간을 넘어 소통과 배움,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장삼석 기자2580news@daum.net

신안교육지원청, 섬에서 배우고 글로 키우고 점으로 잇다

'2026. SEA+섬·글·점FESTA' 지도초서 성료… 무안반도 교육가족 한마당 축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태환)은 지난달 26일 신안군 지도읍 지도초등학교 일원에서 목포·무안·신안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SEA+섬·글·점 Festa'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무안반도 공동교육과정과 연계한 이번 축제는 '섬(지역의 자연·역사)', '글(독서·백일장·시낭송)', '점(김환기 화백의 점화)'을 주제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한마당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운동장과 지도향교, 서촌길 일대에는 진로·수학·AI· 과학·독서·예술·다문화·안전 등 50여 개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고, 지역 기관과 단체가 함께 부스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작은 학교에서는 하기 어려운 활동과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정말 즐거웠다"며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축사에서 "지역의 자연과 역사, 사람을 배움의 재료로 삼고 그 배움으로 자란 아이들이 다시 지역의 내일을 가꾸는 것이 교육의 '지산지소(地産地消)'"라며, "오늘 여러분이 찍는 작은 점 하나가 훗날 인생의 큰 그림이 될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태환 교육장은 "목포·무안·신안의 교육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배움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무안반도 공동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성문 기자 2580news@daum.net

광양 한국항만물류고, 모의 무역 실전대회 최우수상

전통 방짜유기 활용한 '괄사 세트'로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전략 발표

전남광주 광양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교장 박용수) 학생들이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한 제6회 모의 무역 실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체득한 자유무역협정(FTA) 및 무역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수출 유망 K-소비재를 직접 발굴하고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겨루는 실전형 경진대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FTA·무역·마케팅 실무교육, 원산지실무사 양성 교육, 모의 무역 실전대회 및 해외연수 등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가운데 지난 9월 예선에 전국 13개 학교 25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친 8개 학교 13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무대에는 전통 한지와 매듭 등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아이템부터 화장품,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소비재가 출품되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한국항만물류고 7명의 학생들이 '파워레인조' 팀으로 출전해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방짜유기 괄사 세트'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파워레인조팀은 전통 방짜유기의 항균성 및 우수한 재질적 특성을 현대적인 뷰티·웰니스 트렌드에 맞춰 괄사 마사지 도구로 기획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철저한 해외 시장 분석과 차별화된 타겟 마케팅 전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코트라 해외지역본부의 사전평가(30%)와 수출전문위원 등 전문가 4명의 현장 발표 심사(70%)를 종합한 결과, 최종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 경연 외에도 무역·취업 관련 특강과 코트라 채용 안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미래 무역·통상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직무와 진로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

박용수 교장은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무역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발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창의적이고 실무 역량을 갖춘 무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옥란 기자 2580news@daum.net

국민의힘 남구 시·구의원, 부산시의회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이기대 퐁피두센터 백지화 결정 강력 규탄



부산광역시의회 박미순 의원(남구4,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서성부, 성현달, 조상진 시의원을 비롯한 남구지역 고선화 구의장, 구의원들과 함께 이기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업 중단 결정의 재검토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남구 시·구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기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기대의 자연경관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남구를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며, "이번 백지화 결정은 부산시민과 남구 주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이 남구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으로 기대를 모아온 만큼, 부산시는 사업 중단의 판단 근거와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퐁피두센터와의 국제적 협력관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장기간의 노력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국제적 협력사업의 중단은 향후 부산시의 국제 문화협력과 대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동안의 협의 경과와 사업 철회에 따른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산시가 후속 정책으로 발표한 기존 미술관의 역량 강화와 북항 복합문화전시공간 조성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제시한 후속 문화정책만으로는 사업 철회에 따른 문화적 격차와 남구의 지역경제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남구의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 기회 상실에 대한 별도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이기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사업 백지화 결정 재검토 및 판단 근거·검토 결과 공개 ▲프랑스 퐁피두센터와의 협의 경과 공개 및 사업 철회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과 국제적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 규명 ▲남구의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 기회 상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미순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전재수 시장은 깊이 각성해야 한다"며,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지역 발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시의회와 구의회 차원의 정책 검증과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오규 기자 hog@

세종교육청, AI 활용 서·논술형 평가 신뢰도 향상

서울·충남·경북교육청과 공동운영 협약… 채점 부담 경감·맞춤형 피드백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은 서울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 3개 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지원체계 구축에 전격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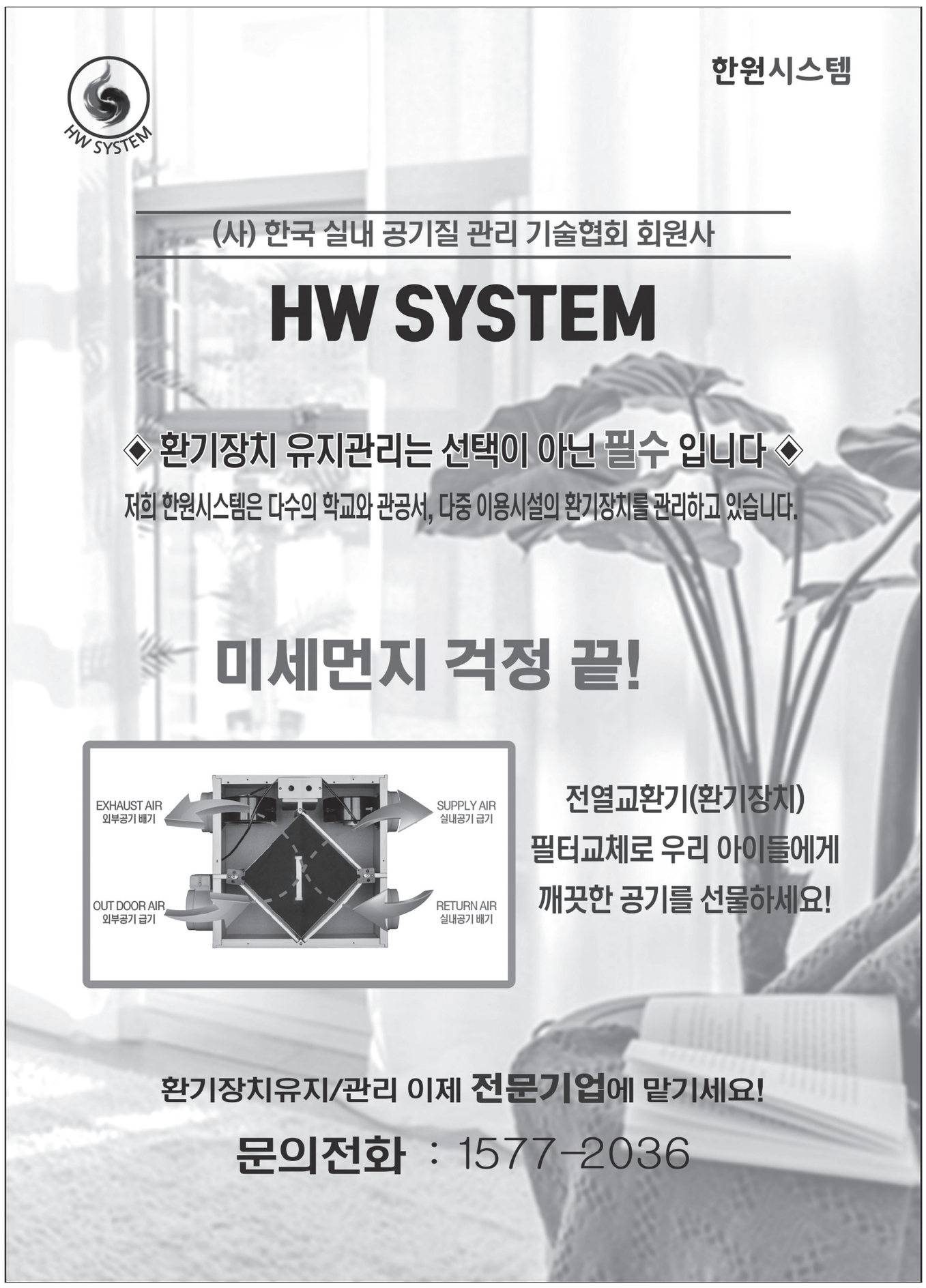
시교육청은 10월 16일 제주에서 3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논술형 평가 및 채점 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일선 학교 현장의 평가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다각도로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및 채점 시스템 공동 운영 ▲서·논술형 문항 공동 개발 및 검토 ▲교원 연수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으로 4개 교육청은 깊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은 교사와 인공지능(AI)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의 답안을 정밀하게 채점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신속히 제공하는 혁신적인 평가 지원 시스템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을 거쳐 교사의 채점 부담을 크게 줄이고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끌어올려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든든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선 기자 kbs@



어르신과 함께하는 세대 공감 K-인성교육 추진

충남교육청,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 충효예 충청정신 바탕 삶 속 실천 교육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10월 29일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어르신과 함께하는 세대 공감 K-인성교육 추진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안이 충남교육청의 강력한 인성교육 강화 의지를 담아 추진됐으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다각도로 협력해서 효와 예, 배려와 나눔을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실천으로 이어가는 데 주된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은 지역사회와의 촘촘한 연대를 바탕으로 세대 간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학생들의 삶 속에서 내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지난 8월 4일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청을 포함한 도내 12개 유관기관이 뜻을 모아 체결한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 업무협약'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은 세대 간 단절과 소통 부재라는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신인 '충효예 충청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지역사회까지 대폭 넓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삶 속 실천 교육으로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점 인성 덕목과 가치 역량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 인성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며 학교자율시간과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와 흥미를 고려한 인성교육을 다각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70개교 내외의 '세대공감 인성교육 이끎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학생과 교사 인성동아리 운영으로 실천 중심 교육을 전방위로 확산한다.

이끎학교는 충효예 세대 공감 인성교육을 운영하며 보훈단체 및 노인회 등 지역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학생 인성동아리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어르신이 계신 현장을 직접 찾아 나눔·봉사활동과 인성·행복놀이를 다채롭게 펼칠 예정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세대를 아우르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품성"이라며 "세대공감 인성교육으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 모두가 손잡고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이끄는 '도민 교육주권 시대'의 모범적인 인성교육 생태계를 완성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아이들의 꿈을 잇고 미래를 열다

충남진로융합교육원, '2026 진로이음의 날' 개최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원장 김홍제)은 10월 31일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에서 학생과 교원,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400여 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꿈을 잇고, 미래를 열다! 2026 진로이음의 날'을 개최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이번 행사가 학생에게는 진로융합활동을 통한 진로개발역량 함양의 기회를, 보호자에게는 자녀 진로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교원에게는 진로·창업교육 선진 모델과 진로연계교육 사례를 활발히 나누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강과 공연, 사례나눔, 진로설계, 전시·체험 등 총 4개 분야로 유기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홍성여자중학교 '두드림 북 동아리'의 활기찬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개막식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김병갑 교육국장의 격려사와 진로융합교육원성과 보고 영상 상영이 이어졌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는 유정임 작가(미 국무부 한미비전협회 이사)가 "진로는 원테이크가 아니다 -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진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중학교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은 농업, 미래이동, 지구, 생명, 진실, 융합, 한계 등 7개 주제관에서 진행된 수업에 참여해 푸드테크, 대체식량, 항공우주 등 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2층 상담 부스에서 운영된 '진로진학 똑똑!' 프로그램에서는 U&I 학습유형검사를 활용한 진로상담과 고입·대입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돼 보호자가 자녀의 진로를 함께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1층 자율체험 부스와 산책로에서는 천안·보령진로체험지원센터, 충남진로전담교사협의회, 충남대학교 유스타터,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순천향대학교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참여한 체험부스가 다채롭게 전개됐다.

김병선 기자 kbs@

"누구에게나 꽃 피우는 자기만의 시간 있어"

정근식 서울교육감, 오디세이학교 학생 17명 만나 '질문여행' 동행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월 19일 오후 오디세이학교 민들레센터와 하자센터 학생 17명을 만나 '질문여행'을 함께했다.

학생들이 길잡이 교사와 함께 교육감을 찾아와 자신들의 여정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마련된 이날 만남은 학생들의 진행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격식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오디세이학교는 2015년 서울교육이 문을 연 학교다. 고등학교 1학년 한 해 동안 입시에서 잠시 떨어져,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의 질문은 깊이가 남달랐다. 한 학생은 중학교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말하면 '나댄다'는 말을 들었다며, 학교가 왜 그런 분위기였는지 책을 찾아 읽고 조사한 끝에 질문을 준비해 왔다. 이 학생은 일반학교로 돌아가서도 존중받으며 마음껏 질문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밖에도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회에서 다른 길을 고르려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려운 교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묻는 학생들도 있었다.

정 교육감은 "대견하면서도 놀라웠고, 어른들이 만들어 온 교육 환경을 돌아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교사가 꿈이라는 한 학생은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학생을 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서 많이 배운다"라고 답했다. 학생과 교사는 서로 배우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저 역시 오늘 이 친구들에게 많이 배운 '서로배움'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건복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에게 꽃 이야기를 들려줬다. 매화처럼 눈을 뚫고 봄보다 먼저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지나서야 찬찬히 피는 코스모스도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누구에게나 꽃을 피우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나는 오디세이학교 학생'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오디세우스의 긴 여행이 결국 그를 집으로 이끌었듯, 오디세이학교에서의 여행도 언젠가 여러분을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다 줄 것"이라며, "남은 여행도 무탈하게, 즐겁게 다녀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제2회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

45개 체험 부스 및 AI·디지털교육 체험·정재승 교수 특강 등 다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육 주체(학부모·시민)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6년 제2회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을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 및 컨퍼런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부모와 시민이 단순한 관람에 머무르지 않고, 학부모회 활동과 다양한 교육 참여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자녀 교육과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크게 참여·전시 마당, 상담 마당, 학습 마당, 소통·강연 마당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중 체험 마당에서는 총 45개의 다채로운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34개 학교 학부모회가 풍선아트와 캘리그라피, 엽서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봤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학습공동체', '서울교육 청렴정책 소개',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등 안내 부스 5개를 운영했고, 외부 유관기관도 '청소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사이버 안심존 앱 체험' 등 6개 부스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한마당에서 가장 주목받은 코너는 단연 'AI·디지털교육 체험 마당'이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VR 및 증강현실(AR) 플랫폼 체험을 통해 디지털기기 활용법을 흥미롭게 익혔으며, 인공지능(AI) 로봇을 직접 조작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나아가 로봇과의 오목 및 축구 게임 등을 직접 진행해 보며 첨단 미래교육 기술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상담 마당에서는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거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학부모 상담이 세심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뇌과학자로 유명한 정재승 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를 주제로 한 명사 초청 학부모 특별 강연이 펼쳐져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이 밖에도 '서울교육 시민참여단'의 토론회 및 시민 제안 등 2026년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시민참여단이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하는 진정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펼쳐졌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시민은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협력 교육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한마당 행사를 통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지혜를 한데 모아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전농중·전일중 통합 미래학교 재개교 추진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통해 2032년 3월 25학급 규모 적정규모 학교로 새 출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자)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10월 8일 '전농중학교 휴교 및 신입생 미배정'을 최종 결정하고 공고했다.

전농중학교는 오래된 학교 건물을 전면 개축한 뒤 오는 2032년 3월 이웃한 전일중학교와 하나로 통합한 '함께 성장하는 미래학교'로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10월 20일 밝혔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결정이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난 1968년 개교한 전농중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쳤으며, 이번 전면 개축 작업을 거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춘 신설급 학교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원청은 전농중학교의 개축 공사와 더불어 인근 전일중학교와의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2032년 이후 두 학교 모두 학생 수가 300명 이하로 줄어들어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전망에 따라, 개축이 마무리되는 2032년 두 학교가 전격 통합하면 교육부의 중학교 적정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25학급, 학생 500여 명 규모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학교가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노후 학교의 개축과 이웃 학교 간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학교가 하나로 합쳐지면 학생들은 적정 규모의 환경에서 훨씬 다양해진 동아리활동과 교육프로그램, 학교 행사 등을 경험할 수 있고,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서 교육 자원을 한층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학교로 다시 문을 열기까지의 추진 과정은 △내후년인 2027학년도부터 전농중 신입생 미배정 △2029년 3월부터 휴교 및 개축 공사 착수 △2032년 3월 통합 재개교 등 총 3단계로 차근차근 진행된다. 공사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뒤에 시작되며,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을 이어간다.

김선자 동부교육장은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신입생 배정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살피겠다"라며, "두 학교가 쌓아 온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2032년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동부교육지원청의 대표 대표 학교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번동초, 전자책 출판·국제공동수업 배움의 지평 확장

과학 프로젝트 전자책으로 또래와 소통… 3개국 영어 수업으로 세계시민 역량 강화

서울번동초등학교(교장 권준범)는 10월 27일 생태전환교육과 국제공동수업을 통해 교실 내 배움을 지역 사회는 물론 전 세계로 활발히 확장해 나간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거쳐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전자책으로 출판해서 국내외 또래들과 폭넓게 나누는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등 3개국 학생들이 한데 모여 참여하는 실시간 영어 국제공동수업을 통해서 음식 문화를 주제로 서로의 삶과 생각을 따뜻하게 공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고민과 서로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소통을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이 지구촌의 문제를 함께 다각도로 고민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아는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든든하게 돕고 있다.

번동초 6학년 학생들은 10월 27일 전남 여수 도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실시간 공동수업을 전격 개최하고 과학 프로젝트 전자책 출판 기념회를 뜻깊게 운영했다.

이번에 추진된 프로젝트는 2학기 과학 '전기의 이용' 단원과 차근차근 연계해서 4주 동안 총 12차시에 걸쳐 알차게 진행됐다. 학생들은 관련 서적을 읽으며 스스로 고심 끝에 탐구 질문을 만들고 디지털 센서를 다각도로 활용한 실험과 탐구 기록을 바탕으로 세련된 전자책을 직접 제작했다.

학생들은 제작한 전자책을 도원초 학생들에게 정성껏 소개하고 서로의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었으며, 이후 다른 지역 또래들의 다채로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전자책의 완성도를 보완한 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인도 학생들과도 비실시간 방식으로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번동초 6학년 학생들은 같은 날 인도네시아 반자르마신 알 이흐산 초등학교 및 일본 반세이 초등학교와 손잡고 3개국 실시간 영어 국제공동수업도 함께 진행했다.

약 110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사가 다 함께 참여한 이번 수업의 핵심 주제는 '음식 문화(Food Culture)'로 정해졌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고유한 전통 음식과 인기 간식, 식사 예절 및 식기 사용 방식 등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서 친밀하게 이해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권준범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를 5000만 명 중 한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바라보는 틀에서 벗어나 80억 명이 다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세계 속 한 사람으로 시야를 넓히는 귀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의 열정적인 탐구가 전자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교사와 교사의 진정한 연결이 교실과 교실의 만남으로 이어져 그 만남이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수업이 지닌 참된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이주배경 가정과 함께하는 가족 어울림 교육

안산교육지원청, 시티투어 버스 타고 안산 역사·문화 체험… 상호 문화 교육 실천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이주배경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어울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산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해 가족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체험하며 정주 의식을 높이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상호 문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은 이주배경 학생과 학부모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바라보고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효인성교육원에서 지역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일에는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방



아머리해변, 선감역사박물관, 유리섬박물관을 탐방하며 안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프로그램은 견학을 넘어 가족 공동 미션, 문화체험, 선주민과 교류 활동을 포함해 자연스러운 소통과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가정은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안산을 직접 체험하면서 학교생활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됐다"며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수진 교육장은 "상호 문화교육은 특정 집단을 지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교육"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가정이 안산을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고, 학부모가 자녀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상민 기자 ssm@

시흥교육지원청, 학교·가정·지역 잇는 독서문화 확산

책모락 연계 '마음책방 북크닉' 성황… 지역도서관과 '벽깨기' 통해 독서 즐겨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산)은 10월 17일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린 책모락 행사에서 시흥시 소래빛도서관과 협력해 '책빛시흥 마음책방 북크닉'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흥 RAS 독서교육의 지역 연계 활동이자 독서교육선도교육지원청의 학생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지원청과 지역도서관이 기관 간 경계를 넘어 자원과 전문성을 연결하는 '벽깨기' 협력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 책을 즐기는 자리를 조성했다.

'마음책방'에서는 참여자가 선택형 질문을 따라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살펴보고, 이에 어울리는 그림책을 추천받았다.

이어 그림책과 책갈피가 담긴 바구니를 빌려 가족과 함께 야외 독서를 즐겼다. 책을 읽은 뒤에는 인상 깊은 문장을 책갈피에 적으며 독서의 여운을 간직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그림책 16종 48권과 체험 자료를 준비하고, 독서교육 지원단 교사들과 함께 책 추천과 대여·반납을 지원했다. 소래빛도서관과는 지역 독서행사 안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번 운영은 교육지원청의 독서교육 전문성과 지역도서관의 독서문화 기반을 연결해 배움의 공간을 지역으로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독서 경험을 통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현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현장 운영에서 확인한 참여자 반응과 지원단 의견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고, 지역도서관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과 지역도서관의 협력은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학생의 배움과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학교·가정·지역이 함께 읽고 성장하는 독서문화를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신상민 기자 ssm@

서울학생체육관 스포츠·문화 거점 탈바꿈

서울교육청, 50년 만에 잠실에… 내년 상반기 개관 목표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관장 이수근)이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공기여 사업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 시민이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스포츠·문화 복합공간으로의 이전·신축을 전격 추진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77년 개관한 이후 약 50년 동안 서울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각종 스포츠·문화행사를 다각도로 지원해 온 학생체육관의 기존 관람 중심 시설을 학생 참여형 체육활동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신축 체육관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남서측(야구장 북측)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신축 학생체육관 내부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수영장과 다이빙장 등 다채로운 전문 체육시설이 대거 들어서게 되며, 추가로 시청각실과 다목적실도 함께 마련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시민 대상 활동까지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학생체육관은 이전·신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차질 없는 개관 준비를 위해 '신축 이전 종합계획 마련 TF'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병선 기자 kbs@

정근식 서울교육감, 현장 중심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이주배경 가족 한국 사회 정착 위해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 강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이주배경 학부모를 단순한 교육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 공동체의 주체로 바라보고, 이주배경 학생과 가족이 학교를 통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문화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10월 20일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근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부모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을 소개하며, 이주배경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등을 맡아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배경 학부모를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미 학교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번 학부모 공론장에서는 발제를 맡은 학부모들이 사전 토론을 통해 고민과 의견을 정리해 온 덕분에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육 지원을 둘러싼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전 경험한 교육환경과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교육감은 중도입국 학생이 많은 중국의 학교와 한국 학교의 교육환경을 비교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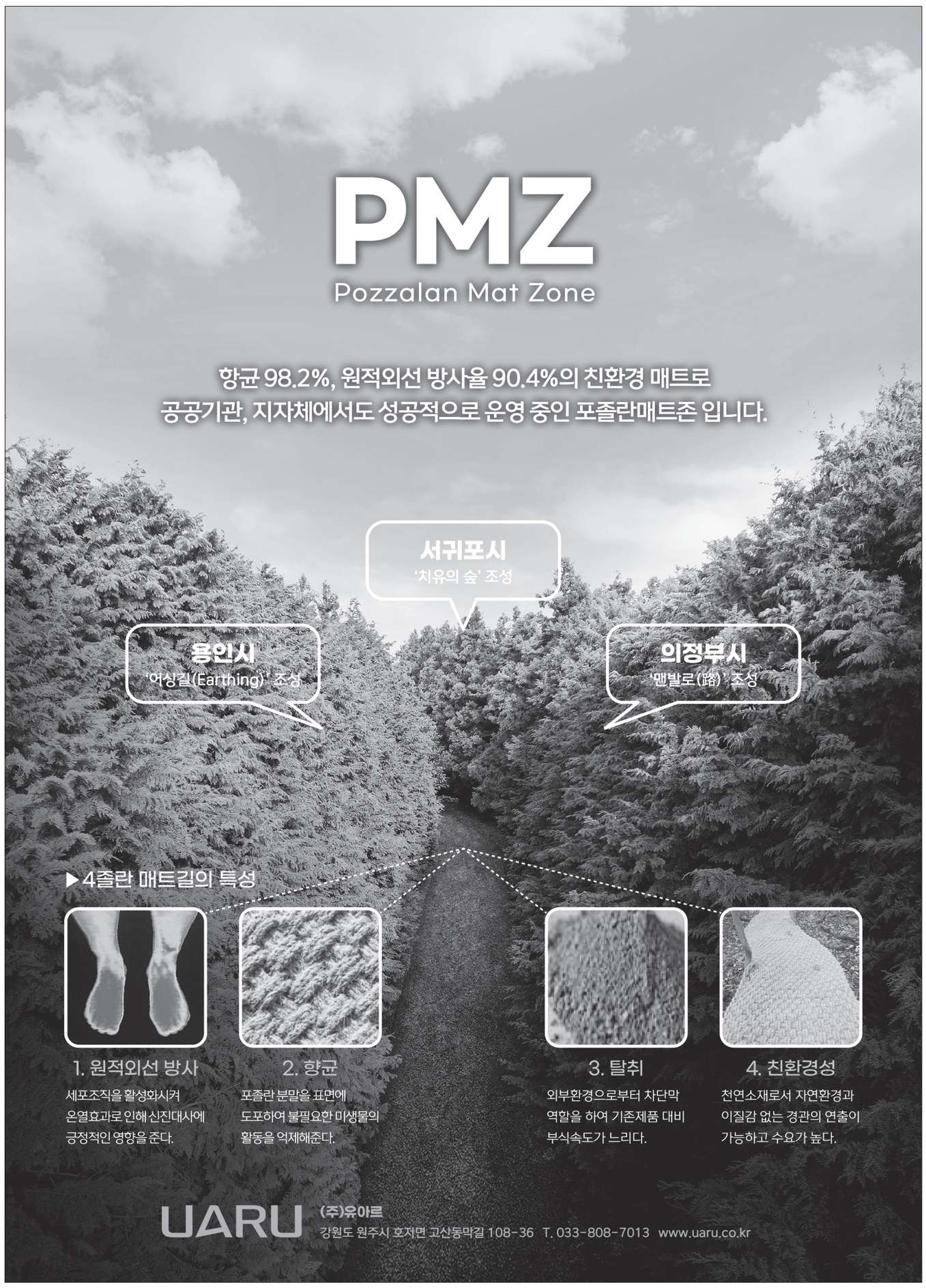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방향에 맞춰 한국어교육과 세계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이후 3개월 과정의 한국어교실을 처음 마련하고,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춰 찾아가는 한국어교실과 세계문화 수업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주배경 학생이 한국어 능력을 키워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교육 프로그램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남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업무는 쌓여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던 직원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번 학부모 공론장에서도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주배경 가족에게 학교는 한국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학교에서 어떤 환대와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가족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정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부터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장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다시 살펴 이주배경 학생과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영유아 보호자 대상 적기·이음교육 연수

그림책 특강과 초등 이음교육 안내 통해 조기 사교육 불안 해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영유아 보호자의 자녀 이해를 높이고 발달 특성에 맞는 적기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10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청각실에서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마음을 읽는 부모, 성장을 잇는 배움' 연수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그림책을 매개로 자녀의 마음과 성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한편 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상세히 안내하여 보호자들의 조기 사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자녀 양육관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진행된 연수는 클래식 그림책 콘서트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예술대학교 김지은 교수가 진행하는 '그림책으로 읽는 아이의 마음' 특강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올바르게 읽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 활용 방안을 공유했으며, 이어 서울한산초등학교 이진우 교사의 '초등학교 첫걸음, 이음교육의 이해' 특강을 통해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전달하고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을 위한 보호자의 다각적인 역할과 지원 방안을 폭넓게 조명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영유아기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배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자녀의 개별 발달 속도와 흥미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적기교육은 물론 유아기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배움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잇는 이음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끌어올리는 데 주된 중점을 뒀다. 이를 토대로 가정 내부에서도 그림책과 놀이를 결합한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자녀의 향후 초등학교 적응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선비교육으로 '인성 갖춘 직업인' 키운다

김준용 인천뷰티예술고 교장 "기술 못지않게 바른 인성이 직업인의 경쟁력"

미용, 디자인, 식품 분야의 전문 인재를 키우는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교장 김준용)가 지난 10월 27일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직업 소양을 함께 기르기 위해 '찾아가는 선비교육'을 운영했다.

인천뷰티예술고는 오전 9시부터 4교시에 걸쳐 1·2학년 15개 학급 27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비수련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도위원(강사) 20명(윤건선 팀장 외 19명)이 학교를 찾아 선비정신을 전했다.

교육은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4교시 12:00~12:50 순으로 교시당 50분씩 진행됐다.

참여 학급은 1학년 8학급(미용과 4·디자인과 2·식품과 2) 154명, 2학년 7학급(미용과 3·디자인과 2·식품과 2) 123명이다. 2학년 4반 미용과 학생들은 도제 실습으로 이번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교육과정은 '지혜편'과 '실행편'으로 구성됐으며, 각 학급은 4교시에 걸쳐 네 과정을 차례로 수강했다. 지혜편에서는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요'와 '퇴계의 지혜로 바른 인성을 갖춘 도덕인'을, 실행편에서는 '예절은 삶의 품격'과 '몸과 마음 공부, 정심투호'를 배웠다.



학교 측은 이번 교육에서 교권 강화, 학생 인권 존중, 배려와 존중 실천을 주제로 다뤄 주기를 희망했다. 고객을 직접 대하는 일이 많은 미용·디자인·식품 분야 학생들에게 배려와 존중의 태도가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교시에는 아침 적응이 덜 된 학생들이 외부 강사의 수업에 다소 무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4교시에는 교과 교사들의 협조 속에 수업 분위기가 눈에 띄게 살아나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지도위원들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점차 수업에 적극 참여했다며, 심성이 착하고 아름다운 학생들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수업에는 강릉에서 온 지도위원을 비롯해 경기지부 소속 지도위원들도 새벽길을 달려와 참여했다. 지도위원들은 김준용 교장과 교감, 김유정 부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친절하고 긍정적인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준용 교장은 "미용·디자인·식품 분야로 사회에 나갈 우리 학생들에게는 기술만큼이나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른 인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선비교육이 학생들이 인성을 갖춘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비교육은 1501년 태어나 1570년 별세할 때까지 70평생을 산 퇴계 이황 선생의 삶을 본받자는 취지의 교육이다. 퇴계 선생은 학문의 목적을 출세나 과거급제가 아닌 자신을 바로 세우는 '위기지학'에 뒀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행병진'의 삶을 살았다. 퇴계의 소원 또한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은 세상을 만드는 '소원선인다(所願善人多)'이었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기계를 능가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안동시 등은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 기금을 마련해 퇴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지도위원들은 선비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방문해 보통 4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에 따라 선비정신을 가르치며, 이 활동은 교육재능기부 봉사로 이뤄진다.

인천에서는 올해 인천예일고를 시작으로 부개서초, 인천해원고, 인천동양중, 인천뷰티예술고가 선비교육을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초·중·고 여러 학교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교육이 이웃 학교로도 널리 알려져 선비교육이 인천의 특색 있는 인성교육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김병선 기자 kbs@

퇴계에게 배우는 선비정신으로 바른 인성 함양

인천동양중, 찾아가는 선비교육 운영… 황미희 교장 "착하고 바르게 자라길"

인천동양중학교(교장 황미희)는 10월 19일 오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1학년 5개 반, 2학년 6개 반 등 학생 23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비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는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도위원(강사) 15명(팀장 윤건선)이 학교를 찾아 선비정신을 전했다.

교육에는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중학교 교재 '바른 인성과 지혜'가 활용됐다. 이 교재는 훌륭한 지성과 지혜, 그리고 실천력을 길러 공동체 의식을 갖추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과정은 '지혜편'과 '실행편'으로 짜였다. [지혜편] 자신의 꿈을 키워요: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키워 가는 시간, [지혜편] 퇴계처럼 나를 돌아보고 함께 성장하기: 퇴계 선생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실행편] 바른 예절로 가는 길: 일상에서 지켜야 할 바른 예절을 익히는 시간, [실행편] 몸과 마음을 하나로! 정심투호: 투호 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바르게 모으는 체험 시간이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학생들은 선비수업을 받은 뒤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난 후에도 서로 공수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 교육의 힘을 느끼게 했다. 2005년 개교한 인천동양중학교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운영교로 선정돼 선진형 교과교실과 미래교실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선비교육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황미희 교장은 "선비정신을 배우고 좋은 행동을 실천해서 착하고 바르게 자라며 바른 인성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비교육은 1501년 태어나 1570년 별세할 때까지 70평생을 살았던 퇴계 이황 선생의 삶을 본받자는 취지의 교육이다. 퇴계 선생은 학문의 목적을 출세나 과거급제에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바로 세우는 '위기지학(爲己之學)'에 힘썼으며, 배운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지행병진(知行竝進)'의 삶을 살았다. 또한, 퇴계 선생의 소원은 '소원선인다(所願善人多)', 즉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맞아 기계를 능가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안동시 등은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 기금을 마련해 퇴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수련원은 이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선비정신을 통한 올바른 인성교육을 지원한다. 선비교육 지도위원(강사)들은 선비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방문해 보통 4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에 따라 선비정신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교육재능기부 봉사로 이뤄진다.

선비교육의 불모지로 불리던 인천지역에서는 올해 인천예일고를 시작으로 부개서초, 인천해원고, 인천동양중이 선비교육을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초·중·고 여러 학교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김병선 기자 kbs@

충남교육청, 초등 문해력 높이는 한자 학습 자료 개발·보급

3~6학년 사회·과학 교과서 핵심 어휘 활용… 뜻과 소리 연결한 4단계 학습 지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초등학생의 어휘력과 문해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사회·과학 교과서 핵심 어휘를 활용한 학습 자료 '교과서 핵심한자 뜻이랑 소리랑'을 개발해서 도내 초등학교에 전격 보급한다고 10월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자료가 학생들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 개념을 한층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암기와 쓰기 중심 한자 학습에서 과감히 벗어나 한자의 뜻과 소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단어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주된 중점을 뒀다.

개발된 자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사회 및 과학 교과서를 세심하게 분석해서 단원별 핵심 한자를 선정했으며, 학생들이 교과서 본문에서 관련 어휘를 직접 찾아 그 의미를 스스로 유추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한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교과 수업의 단원 도입 활동 등에도 즉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학습 활동 단계는 ▲찾아봐요(교과서에서 핵심 한자가 포함된 단어 찾기) ▲이어봐요(한자의 뜻과 소리를 연결해 단어의 의미 유추하기) ▲펼쳐봐요(생활 속 다양한 단어로 어휘 확장하기) ▲다져봐요(배운 한자와 어휘의 의미 확인하기) 등 총 4단계로 실용성 있게 구성됐다.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 수준과 교실 수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과서 한자 이야기' 코너를 별도로 조성하여 한자의 생성 원리와 흥미로운 유래를 예쁜 그림과 이야기로 편안하게 살펴보고, 바른 획순에 따라 직접 써 보는 활동을 함께 제공해서 학생들이 한자에 한층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에 개발한 학습 자료를 교육청 공식 누리집에 피디에프(PDF) 파일 형태로 게시해서 도내 모든 학교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는 2027년에는 한자 교육 이끎 학교를 대상으로 인쇄 책자를 직접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한자 교육은 단순히 글자를 무작정 외우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 깊이 담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가는 배움이어야 한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 속 어휘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문해력과 교과 학습 역량을 다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봉황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전 대상

자율형 공립고 2.0 미디어·콘텐츠 특화 교육 결실

봉황고등학교(교장 김혜정)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제3회 게임문화 그림일기 및 광고 포스터 공모전'에서 청소년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36일간 전국에서 출품된 56개 작품을 대상으로 유아 및 미디어 분야 외부 전문가 5인(심사위원장 남주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해당 공모전은 AI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구상하고 만든 작품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학생의 창의성과 노력에 대해 강조를 두었다.

심사는 독창성(30점), 주제 적합성(20점), 작품성(23점), 활용성(20점)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되었으며, 봉황고 학생의 출품작은 창의적인 메시지와 뛰어난 시각적 완성도로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으며 청소년부 최고 자리인 대상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150만 원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작은 오는 11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26(G-STAR 2026)' 현장에 특별 전시되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수상은 봉황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사업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콘텐츠 특화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김혜정 교장은 "자공고 2.0의 체계적인 콘텐츠 특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미디어로 표현하는 창의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을 품고 세계와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콘텐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2580news@daum.net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고, 특허로 꿈을 실현하는 학교… Design Your Dream!!

한국 최초 발명·특허 특성화고, AI 시대 모델로 키우는 배동윤 교장

부산 대광고등학교



배동윤 교장

"발명 특허 창의성이 교육이 아닌 학교 문화로 살아 움직이는 학교를 만들다!!

특정 사람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움직이는 학교를 만들다"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한 곳이, '누적 특허 등록 100건, 특허 출원 2,180건, 학생 발명아이디어제안 1만 9,351건'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쌓았다.

2007년 교육부와 특허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발명·특허 분야 특성화고인, 대광고등학교다.

2000년 5월 '아이디어가 곧 돈'이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한 발명아이디어제안제도는 27년째 전 교생이 참여하는 학교 문화가 됐고, 부산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14년째 연속 단체 최우수학교상, 고등부 수상자의 절반 이상의 상을 휩쓰는 학교가 바로 대광고의 저력이다.





2025년에는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우수학교로 선정됐고, 전국 발명·특허 고등학교 연합교류전에서는 매년 지식재산처장상(구, 특허청장상)을 받아 오고 있다.

올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AI 융합교육 중심학교'와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로 선정돼, 발명에 AI를 더한 자체 교육모형인 '대광고 AIDER 교육 모형'을 전 교과·전 교사 수업에서 가동하고 있다.



이 학교를 이끄는 주인공은 바로 배동윤 교장이다.

배동윤 교장은 1994년 공립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처음 교단에 선 뒤, 교육부 교육연구사로 사이버가정학습·이러닝 정책과 직업교육 정책 및 마이스터고 업무를 맡았고, 2010년 대광고로 자리를 옮겨 특성화사업단장과 교감을 거쳐 현재 교장으로 재임 중이다.

교사에서 교육정책가로, 다시 학교 경영자로 32년을 오직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 대광고의 성과는 특정 교사의 열정이 아니라 "발명 특허 창의 교육을 통해 학교 문화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는 학교", "꿈을 디자인 하는 학교(Design Your Dream!)"를 만든 결과다. 교육연합신문이 대광고를 찾아 그가 말하는 교육철학과 리더십, 그리고 대광고의 다음 도전을 들었다.

– 한국 최초 발명·특허 특성화고, 대광고의 18년

학교법인 상록학원 대광고의 뿌리는 1972년 당리동 현재의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올바른 직업인으로서 성공한 기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하고 '창조적 변화 거대한 도전' 건학이념으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보기 힘든 명문 특성화고로 성장해 왔다.

1992년 대광공업고등학교 개편을 거쳐 2007년 12월 교육부·특허청·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 육성사업에서 '발명·특허 분야 특성화고'로 지정됐다. 학교 전체가 발명과 특허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둔 사례는 국내 최초였고, 학교 측은 학교 단위 발명·특허 특성화 모델로는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고 설명한다. 2009년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발명과학관을 열었으며, 2010년 부산교육청인가 발명영재학급을 설치했다. 2019년 학과 개편과 함께 지금의 대광고등학교가 되었다. 2008년 정부부처(특허청) 지원 발명특허 특성화고 제1기(2008~2012년) 사업을 시작으로 특허청 특성화고 평가 전국 1위를 수차례 기록하며 제4기(2023~2027)까지 연속적으로 재선정되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발명 특허 특성화고로서 혁신적 교육을 실현해 왔다.

지금의 학과는 뷰티아트과·AI디자인과·VR콘텐츠과를 운영 중이고, 3개 학과 모두 부산 지역 특성화고에서 최초로 개편된 학과들이다. 현재 3학년에 운영중인 3D프린팅과는 한국 고교 최초로 개편된 학과였던 것과 같이 배교장은 급변하는 산업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학교를 선제적으로 끊임없는 변혁을 추진해 왔다.

교육의 성과는 숫자로 확인된다. 학교가 집계한 발명아이디어 제안은 2023년 7월 1만 6,774건에서 2026년 7월 1만 9,351건으로, 특허 출원은 1,864건에서 2,180건으로, 등록 특허는 66건에서 100건으로 늘었다. 3년 사이 등록 특허가 34건 늘어난 셈이다. 이 수치는 전국 어느 고등학교도 갖지 못한 기록이다.

– 발명에 AI를 더하다… 대광고 'AIDER' 교육모형

AIDER 교육 모형은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발명(Invention)-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융합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치실현(Realization)으로 잇는 대광고 자체 개발 교육모형이다. 2026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AI 융합교육 중심학교'와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로 선정되면서 전 교과·전 교사가 참여하는 AI 활용 발명 융합교육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사들은 매년 AI 역량 강화 워크숍과 32시간의 AI 디지털 연수를 거쳤고, 학생들은 생성형 AI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특허명세서를 쓴다. 학생 1인 1지식재산권 출원,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재구조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정착, 첨단기술 교수·학습자료 연 5종 이상 개발, 메이커 및 창업교육 기반 구축이다. 2024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우수학교 선정으로 외부 검증을 받았고, 올해는 AI 정서케어시스템(엠씨테크 협약)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 교단에서 교육부로, 다시 학교로: 32년의 궤적

배 교장의 이력은 '교사→정책가→학교 경영자'로 요약된다. 1994년 공립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출발해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설 전자계열공동실습소 교사로 일하며 부산 고교 최초의 영상제작실습실을 구축했고, 교사·학생 대상 영상편집 연수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설하고 직접 강의를 해서 교육 현장에 영상편집 활용을 도입, 확대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실천은 Blended Learning 전략을 적용한 공동실습소 교수-학습 모형 개발(대한공업교육학회지, 2005)이라는 논문으로 이어졌다.

2006년 교육부 교육연구사로 자리를 옮겨 사이버가정학습·이러닝 정책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책 업무를 수행했다.

2008년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지원사업 주무 담당관으로 7개 부처·청의 106개 특성화고를 총괄했고, 마이스터고 업무를 담당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입학식에 참석하시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탑다운이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서로 연계·협력해야 정책이 현장에 착근한다"는 것이 그가 교육부에서 얻은 원칙이다.



2010년 대광고로 옮겨 특성화사업단장과 교감을 거쳐 2024년 3월 교장에 취임했다. 교감 시절 전교생 발명아이디어제안제도와 발명영재학급을 학교 운영 체계로 다듬었고, 교직원 워크숍에서 '4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 전략'을 직접 발제했다. 2018년 한국 고교 최초의 3D프린팅과, 2020년 부산 특성화고 최초의 뷰티아트과, 2021년 VR콘텐츠과, 2025년 AI디자인과로 이어진 학과 개편 실무를 이끌었다. 교장 취임 뒤에는 AI를 기반으로 발명·디자인 사고·기업가정신을 가치실현으로 잇는 '대광고 AIDER 교육모형'을 직접 설계해 전 교과에 적용하고 있다. 학생과 함께 고안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발목밑까지 오는 구두용 양말'(제20-0462706호)을 비롯해 특허 6건을 보유한 발명가이기도 하다.

학교 밖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며, 일선에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문제발생시 누구보다고 빨리 선생님께 달려가서 외롭지 않게 선생님 옆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고하고 있다. 한국교총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 위원과 부산교총 이사를 역임했다.

대한공업교육학회 부회장, 한국직업교육학회 이사, 부산광역시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연구와 정책 자문을 이어가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책임집필위원으로 대광고에서 검증한 발명교육 노하우를 전국 교실로 확산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학교경영분과 교육부장관상,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학육성공로자 '봉황장'을 받았다.



기자가 본 배 교장의 리더십은 세 단어로 압축된다. 특정 교사의 열정을 학교 전체의 제도로 바꾸는 '시스템',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전국·정책과 잇는 '연결',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먼저 믿는 '사람'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중앙현관의 노벨상 부조 옆으로 학교의 기록을 담은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2021년 8월 학교 소식지에 "학교 중앙현관을 들어서면 노벨상 부조물이 제일 먼저 보인다"고 썼던 교감은 4년 뒤 그 현관 앞에서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우수 운영교' 현판을 든 교장이 되어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 사이 학교의 등록 특허는 60건에서 100건이 됐고, 아이디어 제안은 1만 6,203건에서 1만 9,351건으로 늘었다.

배 교장이 되풀이한 말은 '담장'이었다. 교육부에서 배운 현장과의 연계, 교감 시절 직접 그린 실습실 동선, 교장이 된 뒤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AI 발명교육 모형까지, 그의 관심은 늘 학교 담장 안에 머물지 않았다. "학교는 지역과 함께 산업을 키우고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대광고 한 곳의 비전이라기보다 부산 직업교육, 나아가 부산 교육 전체를 향한 제안으로 들렸다.

"꿈을 디자인하세요.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소식지마다 그가 붙여 온 이 구호는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32년 동안 교사·정책가·경영자로 교육의 세 자리를 모두 거친 그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한국 최초의 발명·특허 특성화고는 지금 'AX 시대 직업교육의 성공 모델'이라는 특허를 출원 중이다.

인터뷰 | 배동윤 교장









한국교총 정책자무위원,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위촉(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 대광고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그리고 교장으로서 추구하는 교육철학은.

"학교건학이념은 '거대한 도전, 창조적 변화'입니다. 1972년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에게 '기술이 곧 힘'이라며 기술을 가르쳐 당당한 직업인으로 서게 하겠다는 뜻으로 학교를 세우며 내건 말입니다(설립자: 송수천 이사장, 고배상태 이사). 교훈은 학문·발명·봉사이고, 교육목표는 '큰 뜻을 품고 자신과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롭게 헌신하는 창조적 CEO 육성'입니다.

학교의 건학이념은 '거대한 도전, 창조적 변화' 교훈은 '학문·발명·봉사'이다. 교육목표는 인재상인 '대광인(큰 뜻을 품고 자신과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롭게 헌신하는 창조적 CEO) 육성'입니다.

교명의 洸(광)은 '물이 용솟음친다'는 뜻으로, 학교명인 대광(大洸)은 "큰 샘에서 물이 용솟음치듯 창의성과 아이디어, 발명이 솟아나고 글로벌 인재가 펑펑 솟아져나오는 학교"로 풀이합니다.

제 교육철학은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2000년 발명교육을 선포하며 내건 '아이디어는 곧 돈이다'입니다. 발명을 위한 발명이 아니라 생활 속 불편을 찾아 해결하고, 그것을 특허로, 진로와 창업으로 연결하는 교육입니다. 다른 하나는 '발명은 엉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의 핵심 가치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에 대한 '무한 투자'입니다."

■ 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리더십과, 그로 인한 변화는.

"제가 꿈꾸는 학교는 몇몇 특정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며 꿈을 디자인하고 마음껏 실현해 나가는 문화가 살아있는 학교입니다.

특정 교사 한두 명의 열정에 기대면 그 교사가 떠나는 순간 교육도 끝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전교생이 연중 수시로 아이디어를 내고 학기별로 시상하며 학년 말 최우수작은 변리사의 도움으로 특허 출원까지 가는 발명아이디어제안제도의 일상 생활화입니다. 시행 첫해에는 아이디어 1건에 1,000원, 최우수작에 30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아이디어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둘째, 전 교원 대상 지식재산처 발명교사 인증을 받고 교사 1인당 1권 이상의 발명 수업교재를 만드는 교원 전문성 체계 확립. 셋째, 2010년 부산교육청 인가를 받아 16년 넘게 운영해 온 발명영재학급입니다. 매년 1, 2학년 30명 안팎이 정규수업 외 100시간의 심화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322명이 수료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특허 104건과 디자인 50건이 출원되고 특허 13건이 등록됐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발명 특허 교육의 결과가 누계 아이디어제안 19,351건, 특허 출원 2,180건, 그리고 올해 4월의 100번째 특허 등록입니다. 숫자보다 더 큰 변화는 학령인구가 줄고 직업계고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대광고가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유지하는 '가고 싶은 학교, 아무나 갈 수 없는 학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 교직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신뢰를 얻는 학교 운영 원칙은.

"스승의 날 행사에서 '교육은 지식보다 먼저, 사람을 향한 존중과 신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장의 일은 지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전문가로서 마음껏 시도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정책을 담당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내는 정책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시도교육청·학교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야 비로소 착근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교직원 워크숍에서 발명특허 사업과 AI 역량 강화 전략을 함께 세우고, AI·디지털 활용 수업을 공개하는 '수업공감 DAY'를 열고, 교사 소그룹이 3Ds MAX·라이노 CAD·네일 드릴처럼 자기 수업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골라 배우는 연수를 지원합니다. 올해 4월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대표가 함께 서약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선포했습니다.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존중받습니다. 학교폭력·교권침해 근절 선포식을 이어온 이유입니다."

■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대광고의 자랑 세 가지와 특색 프로그램은.

"첫째, 발명·특허 교육의 깊이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연간 200시간 이상의 발명 특허·지식재산교육이 들어 있고, 학생들이 생성형 AI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특허명세서를 쓰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졸업할 때쯤이면 특허 출원서를 한 번은 써 본 아이들이 됩니다. 둘째, 산업 수요를 앞서 읽는 학과입니다. 2018년 한국 고교 최초의 3D프린팅과, 2020년 부산 특성화고 최초의 뷰티아트과, 2021년 VR콘텐츠과, 2025년 AI디자인과까지 급변하는 산업의 변화 속도에 맞춰 학과를 바꾸어 왔습니다. 셋째, 담장 밖으로 나가는 학교입니다. 2001년부터 25년째 전국 중·고생이 참여하는 전국대광발명창작대회를 열고, 지역 중학생 대상 발명·디자인 진로체험을 운영하며, 뷰티아트과는 2020년부터 당리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지역어르신과 함께 하는 미용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같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기술로 어르신께 서비스하는 마음을 너무도 예뻐하시고 학생들도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과 함께 하는 작고 예쁜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이어온 해외 발명체험연수, 1학년 전체가 당일 항공편으로 일산 킨텍스 3D프린팅 컨퍼런스를 다녀온 일도 다른 학교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일 겁니다."

■ 최근의 대표적인 교육성과를 꼽는다면.

"올해만 꼽아도 제47회 부산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참가 고교 중 최다인 16명이 입상해 14년 연속 단체 최우수상을 받았고, 4월에는 학생발명 '크기 조절이 가능한 신발'이 100번째 등록 특허가 됐습니다. 8월에는 IP마이스터 프로그램 수상작이 '전기 플러그용 발광 장치'로 특허 등록되었고 기업에 기술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9개 발명·특허고가 겨루는 연합교류전에서는 개최년도부터 매년 지식재산처장상(구, 특허청장상)을 받았는데, 올해의 발명품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깊이 감지 세이프 스텝'이었습니다.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우수학교 선정, 부산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애니메이션 직종 메달과 전국기능경기대회 부산 대표 선발,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전국 본선 입상도 있었습니다. 학교 교기인 스쿼시부는 남, 여 부산고교대표팀으로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발명영재학급 수료생 중에는 삼성전기·한국전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UNIST·연세대·고려대·부산대 등으로 진학하고, 뷰티아트과 1기 졸업생들은 벌써 헤어디자이너로 데뷔했습니다.

학교 중앙현관에는 노벨상 부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발명왕! 노벨상을 꿈꾼다!'는 슬로건으로 졸업생이 노벨상을 받으면 그 얼굴을 황금으로 만들어 걸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이들이 그 앞에서 '내 얼굴을 꼭 달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성과입니다."

■ AI·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은.

"2022년 12월, 챗GPT가 공개되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전교직원 AI 워크숍에서 배동윤 교장을 직접 특강을 통해 AI를 소개하고 앞으로 교육에서 AI혁신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교과에서 AI 활용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학교 소식지에 'AI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시작해야 하는 필수'라고 썼습니다. AI 전환 시대에 발명교육은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고, AI는 그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AI를 기반으로 발명(Invention)·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가치실현(Realization)을 잇는 '대광고 AIDER 교육 모형'을 전 교과·전 교사 수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AI에 발명을, 디자인 사고를, 기업가정신을 하나씩 더해 결국 특허·창업·취업이라는 가치실현으로 잇는 구조입니다.

교사들은 AI 기반 특허명세서 작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제미나이·노트북LM 활용,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노션 기반 수업혁신 연수를 32시간 이수했고, 학생들은 전교생 AI 디지털 교육과 특허명세서 작성 특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우수학교로 평가받았고, AI 특허명세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전국 발명·특허고는 물론 일반고로도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학년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와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로 선정돼 전 교과·전 교사가 참여하는 AI 활용 융합교육을 본격 시행하고 있고, AI디자인과 1학년들은 교외대회에서 AI로 부산 도시 브랜딩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다만 저는 늘 학생들에게 'AI에 종속되지 말고 AI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올해 AI디자인과 비전 선포식에서도 'AI는 도구일 뿐, 그 도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창의력과 따뜻한 시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AX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과 함께 성장하며, 자신만의 창의성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 산학협력·취업 지원, 그리고 인성·진로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대광고는 교육부·고용노동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전국 최초로 단일학교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뷰티아트과 도제학급 학생은 3학년 때 주 2회 미용실로 출근하고 주 3회 학교로 등교합니다. 펠리아, 화미주헤어, 박승철헤어스투디오, 박준뷰티랩, 이철헤어커커, 약손명가, 고운빛깔에스테틱, 한국미용장협회 부산지회 등과 협약을 맺어 명장과 대표들이 직접 학교에 와서 가르치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관 반도체인력양성사업으로 고교 2년·전문대 2년·협약기업으로 이어지는 4년 연계 과정도 운영합니다. 올해는 전국 직업계고 100곳만 참여하는 신한 커리어온 운영학교로 선정돼 3학년이 면접 트레이닝을 받았고, 도제 우수학생들은 독일·오스트리아·싱가포르에서 연수했습니다. 저희가 그리는 것은 '졸업→취업→후학습→창업 또는 관리자'로 이어지는 7년 정착 모델, 부산에 뿌리내리는 정주형 인재입니다.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기르는 전인교육, 그것이 교훈의 마지막이 '봉사'인 이유입니다. 뷰티아트과 학생들이 2020년부터 해마다 당리동 어르신들께 염색과 손 마사지를 해드리는 '사랑나눔 미용봉사', 영상제작반이 만든 학교폭력 예방 영상, 지역 중학생 진로체험 도우미 활동이 그런 교육입니다."

■ 학교 운영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제와, 이를 풀어낸 과정은.

"학령인구가 줄고 직업계고 전체가 힘을 잃던 시기에 '학생이 오고 싶은 학교'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발명교육으로 이름은 알려져 있었지만, 산업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과가 함께 가야 했습니다. 답은 '산업이 원하는 학과'였습니다. 2017년 교육부 학과 개편 사업에 선정돼 2018년 한국 고교 최초의 3D프린팅과를 만들었고, 2020년 뷰티아트과, 2021년 VR콘텐츠과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학과 교사의 전환, 실습실 투자, 학부모 설득이 모두 걸린 결정이었습니다. 1층 뷰티 실습실은 설계 단계부터 선생님들과 학생 동선을 그려가며 만들었습니다. 2021학년도 VR콘텐츠과 특별전형 경쟁률 2대 1을 시작으로 흐름이 바뀌었고, 지금은 평균 1.5대 1 안팎의 경쟁률을 유지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 중장기 발전 목표와 실천 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명·특허 교육의 AI 전환을 완성해 대광고 AIDER 교육 모형을 전국의 발명·특허고와 일반고로 확산하는 것. 둘째, K-뷰티·AI디자인·VR콘텐츠 학과를 지역 산업·대학과 더 단단히 묶어 '부산 지역의 인재를 지역이 키우는' 정주형 인재 모델을 완성하는 것. 셋째, 발명교육을 고교 담장 밖으로 넓혀 사하구와 부산의 초·중학생이 발명을 처음 만나는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제4기(2023~2027) 발명·특허 특성화고에 재선정된 지금, 다음 5년은 '한국 최초 발명·특허고'에서 'AX 시대 직업교육의 성공 모델'로 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장 취임시 '앞으로 100년을 선도하는 명문 중의 명문'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중입니다."

■ 학생들 사이에서는 '같이 노는 교장'으로 통한다고 들었다.

"대광축제 무대에서 학생들과 지코의 '새삥'에 맞춰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고, 교내합장대회에서 복면가왕처럼 '조째즈' 가면을 쓰고 깜짝 무대에 선 적도 있습니다. 학교장 인사를 숏츠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아침맞이 행사 날에는 셰프복을 입고 선생님들이 구운 와플을 학생들에게 일일이 건넵니다. 신입생에게는 이름을 새긴 USB와 가위를 직접 전달하며 '학생이 미래의 인재이자 주인공임'을 강조하며 학생 한명 한명 직접 전달하며 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격식 있는 교장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교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벤트에도 아이들이 크게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학교는 결국 사람과 마음이 중심이 되는 곳임을 다시 느낍니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웃는 학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입니다."

■ 교육자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기억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졸업생과 함께 고안해 등록한 특허증이 있습니다. 제자 이름 옆에 제 이름이 나란히 적힌 그 증서를 볼 때마다, 교사의 일은 아이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등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네 아이디어가 돈이 되고 진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선생님'으로, 교직원들에게는 '선생님들이 전문가로서 마음껏 시도하도록 뒤를 받쳐준 교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교단에서 12년, 교육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경영을 하며 확인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가 전문가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선생님들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는 대광고가 '거대한 도전, 창조적 변화'로 늘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꿈을 디자인하세요.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대광고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 강화

직속기관 체험프로그램 확대·개선… 전국 체험처 통합 안내자료 제작·보급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선도교육청 사업과 연계해 직속기관 체험프로그램을 확대·개선하고, 현장체험학습 체험처 통합 안내자료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선정한 현장체험학습 선도교육청으로서 학교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대전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의 체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숙박형 수련활동과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학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2027년에는 직속기관 프로그램을 한층 더 확충해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지속해서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선정할 때 여러 기관의 누리집을 일일이 검색하고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비교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지의 체험 자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 안내자료를 마련했다.

이번 통합자료에는 교육청 직속기관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충청권 주요 체험처와 전국의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등 풍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았다. 여기에 전국 분야별 체험처 검색 플랫폼과 지역별 관광 누리집 정보도 함께 실어, 학교가 교육과정 및 학생들의 흥미에 걸맞은 체험처를 쉽고 편리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선도교육청 사업을 발판 삼아 직속기관의 체험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완하고, 지역사회 체험 자원과의 연계를 넓혀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미래생활교육과 김남규 과장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 밖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시야를 틔우고 배움을 확장하는 소중한 교육활동"이라며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은 덜고 학생들은 알차고 안전한 체험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대전교육청 직속기관, 가을철 화재 취약요인 점검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중학교 대상 실태 확인·미흡 사항 개선 추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가을철 화재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관내 유·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가을철 대비 학교 화재 취약요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 이내 화재가 발생했던 학교와 가설건축물, 창고, 미사용 건물 등 취약시설을 보유한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노후 건축물과 급식실 등 화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설건축물 및 창고 등 화재 취약시설 관리 상태, 전기·소방·가스시설과 소화기·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 보관장소와 학교 외곽 낙엽·폐기물 등 가연물 관리 상태, 피난통로 확보 및 화재 예방 교육·대피훈련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진형 교육장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조성만 교육장은 "가을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취약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대전교육청, 호주 브리즈번 시청 방문 직업교육 교류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들과 함께 호주 브리즈번시 환영행사 참석



대전시교육청은 10월 30일 호주 브리즈번 시청을 공식 방문해 시의회 부의장(Steven Huang)과 환담하고,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들과 함께 브리즈번시가 마련한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2년부터 브리즈번에서 운영해 온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바탕으로 대전시교육청과 브리즈번의 교육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호주 브리즈번 시의회 부의장(Steven Huang)과 글로벌 현장학습 및 직업교육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환영 행사에서는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 대표가 영어로 발표했다.

학생 대표는 "영어 학습과 호주 생활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도전 의식도 키울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브리즈번에서의 경험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전시교육청과 호주 브리즈번의 직업교육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대전교육정보원, 메이커교육 학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15개교 200명 생성형 AI 활용한 무드등·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대전교육정보원은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15개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메이커교육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생 맞춤형 체험 교육으로, 상반기 17개교 운영에 이어 하반기 15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9월에는 대전교육정보원 대전메이커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학급을 포함한 초·중·고 7개교 92명의 학생이 참여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드등 만들기'를 체험했다. 이어 10월에는 8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교육을 진행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무드등에 담을 창의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레이저 가공기로 정밀하게 구현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목재와 공구를 다루며 무드등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메이커 역량을 함께 길렀다.

대전교육정보원 이영주 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디자인해 손으로 완성해보는 체험은 매우 값진 배움"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협업 역량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메이커가 융합된 체험 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동명초, 오월드·골프 체험학습 운영

'지속가능한 지혜로운 달팽이 학교' 생태전환교육도 실천



동명초등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10월 중 오월드 및 골프 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과 여가 활동을 통해 심신을 건강하게 가꾸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도전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마련했다.

학생들은 대전오월드를 방문해 다양한 동식물과 자연환경을 살펴보고, 여러 체험시설을 이용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경험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배려와 협동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됐다.

골프 체험학습에서는 골프의 기본적인 규칙과 바른 자세를 익히고, 직접 스윙과 퍼팅 등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했다. 학생들은 활동 과정에서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스포츠맨십을 익혔다. 이번 체험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여가 생활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동명초등학교는 대전 동구 추동 대청호 인근에 자리한 6학급 규모의 농촌 소규모 학교로, 체험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따뜻한 인성과 풍부한 감성을 키우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학교 특색사업인 '지속가능한 지혜로운 달팽이 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매월 1회 이상 다채로운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명초등학교 이석호 교장은 "다양한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다채로운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대전봉명중, 안전한 통학로 조성

유관기관 협력 고원식 횡단보도로 개선 보행 안전 강화

대전봉명중학교는 대전시교육청, 대전광역시의회, 유성구청과 협력해 학교 앞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노면을 보도 높이로 높여 차량의 자연스러운 감속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 앞 도로를 과속으로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기존 학교 앞 횡단보도는 과속으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보행 안전 우려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전봉명중학교는 적극행정을 통해 통학로 현장을 살피고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필요성을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협력을 통해 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전봉명중학교는 통학로 현장 모니터링과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필요성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시했으며,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는 현장점검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했다. 유성구청은 도로 구조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예산 지원과 함께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는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진행했다.

대전봉명중학교 박두기 교장은 "이번 통학로 개선은 교육청, 의회,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부산체고 선수단, 제107회 전국체전서 최고 성적

20개 종목 196명 출전… 금 9·은 10·동 16개 등 35개 메달 획득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윤강)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20개 종목, 196명의 학생선수단이 금메달 9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6개 등 모두 3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체고는 부산에서 개최한 대회를 제외하고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8천 점 대 점수를 획득했고, 부산시 고등부 전체 메달 61개 중 63%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가이드북읽기

금메달 획득 종목은 육상(높이뛰기, 해머던지기), 양궁(여, 리커브 70m), 사격(권총), 조정(여, 더블스컬), 세팍타크로(여), 에어로빅(남, 단체), 수영(접영 100m, 평영 100m)으로, 그동안의 빛나는 노력을 증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럭비, 펜싱(남, 플러레) 단체, 양궁(여) 개인 및 단체, 육상(창던지기, 원반던지기), 역도에서 은메달을, 체조(남, 단체), 탁구(남, 단체)등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조정 종목에서 금 1개, 동 4개를 수확해, 부산체고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

부산체고 윤강 교장은 "그동안 흘린 땀방울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선수와 지도자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며, "교육청과 체육회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시의회, 제10대 의회 첫 '이음 정책포럼' 성료

대학·지역기업·상권·청년 연계 통한 지역 상생 및 혁신 모델 모색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강무길)는 10월 2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상생·성장을 위한 부산형 캠퍼스타운 조성 방안 모색'을 주제로 '부산광역시의회 이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10대 부산시의회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와 대학가 상권 침체 등 도시의 쇠퇴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재·기술·공간 등의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고려대 캠퍼스타운과 대구 도심 캠퍼스 사례를 공유하고, 부산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캠퍼스타운 조성 방향과 대학·지역사회 간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명훈 고려대 융합산학원 교수는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례를 통해 대학의 창업 지원 기능과 지역 상권·주거·공공공간을 연계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방향을 소개했다. 창업팀을 위한 공간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학 주변의 상업시설 및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혁신역량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캠퍼스타운의 운영 성과로 창업팀 209개, 사업자등록 123건, 직·간접 고용 2,050명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대구시 소속 이상현(네덜란드 등록 도시설계사)은 대구 도심의 유휴 건축물과 기존 공간을 대학의 교육·문화 기능과 연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우신구 부산시 총괄건축가는 부산형 캠퍼스타운의 방향으로 '대학상생지구'와 '대학혁신지구'를 제시했다. 대학상생지구는 캠퍼스와 주변 상가·주거지·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정비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구상이다.

대학혁신지구는 대학의 교육·연구·창업 기능을 도심과 노후 산업지역, 주요 전략거점 등으로 확장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부산시와 대학의 공동개발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좌장 양재혁 동의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대학의 인재와 기술을 지역기업 및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고 기존 지역혁신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배관구 부산시의원(기획재경위원회)은 대학의 인재·기술이 지역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앵커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역 일자리 및 기업 성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은 배 의원은 실제로 부산시의회 내 의원연구단체 '부산 그리고 미래' 대표의원을 맡아 부산 청년인구 유출 원인 분석 및 정주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활동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정주철 부산대 교수(캠퍼스기획본부장)는 대학 시설 개방과 보행 접근성 개선, 지역 상점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대 국제컨벤션센터 역시 학술·연구 기능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원 부산대상가연합회장은 부산대 장전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부산시·금정구·상인·주민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주변 상권을 청년문화와 창업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상생지구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와 관련 제도개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대학과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황오규 기자 hog@

"불꽃은 화려하게, 가격은 정직하게"… 민관합동 캠페인

부산시, 숙박요금 모니터링 프로그램 활용 합리적 가격책정 숙박시설 발굴·홍보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지난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불꽃축제 대비 숙박시설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불꽃축제 기간 숙박 수요 급증에 따른 과도한 요금 인상과 숙박시설 이용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숙박거래 질서를 확립해 관광객이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시관광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 수영구·해운대구·남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기관들은 먼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광객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관광숙박시설 요금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안과 일반숙박업소 지도·점검 추진현황 및 숙박 관련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부산시관광협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는 숙박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가격 준수와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영구·해운대구·남구는 관할 숙박업소의 요금 안정화와 관광객 불편 예방을 위한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숙박업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책정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절·청결 서비스 실천을 독려하는 안내물을 배포했다.

안내물에는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자제 및 합리적인 가격책정, 숙박요금 및 이용조건 사전 안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 방지, 친절한 고객 응대와 객실 청결·위생관리 등 공정한 숙박거래 질서 확립과 관광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천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시는 자체 개발한 숙박요금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꽃축제 행사장 인근 숙박시설의 요금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자율적인 가격 안정화에 동참하는 공정숙박업소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불꽃축제 당일과 전후 토요일의 숙박요금을 비교·분석해 축제 기간 숙박요금의 인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부산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계기관 및 숙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가격 안정화 참여를 유도하는 등 관광객과 숙박업계가 상생하는 건전한 숙박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콘텐츠산업국장은 "부산불꽃축제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행사인 만큼, 공정한 숙박요금과 친절한 서비스로 관광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숙박업계와 관계기관이 함께 합리적인 가격운영과 친절·청결 서비스 실천에 적극 동참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손영욱 기자 syw@

박종철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 참석…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국민의힘 원내대표(기장군1)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최로 마련됐으며, 박종철 부산시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길영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조재철 대전시의회 대표의원, 방성환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표의원, 김꽃임 충청북도의회 대표의원, 박승직 경상북도의회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남아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종철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이어 국회를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들이 공동 서명한 건의안을 전달하며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오규 기자 hog@

SAVING STORY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 세이빙스토리
당신의 숨,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산소드림 생명구조마스크
화재 시, 산소발생으로 호흡을 보호합니다!
화재 시 유독가스 차단
산소발생으로 호흡보호
두 손 자유롭게 안전 대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품
소방청 소방용 인증제품
혁신제품 조달청 지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학교장터 등록제품
공공기관·지자체·학교·각종 시설 납품
납품·상담 문의 051-711-14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91, 서면동양빌 1104호 | 세이빙스토리 부산지사

윤건영 충북교육감 "학교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

"정당한 민원은 경청하고, 교육활동 침해 원칙대로 대응"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30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해 학교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하고,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며 "교육활동에 대한 정당한 민원은 충분히 경청하고 해결하되, 폭언·협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민원에는 학교장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 종료, 퇴거·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중지 요청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교육활동 침해에 학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교원이 부당한 민원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 교육활동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모든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하는 것"이라며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 K-안심학교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원고, 독도 주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탐구 축제

'로컬&글로벌 데이' 주제 탐구 부스·플리마켓 행사 열려



충원고등학교(교장 직무대행 김용창)는 지난달 30일 교내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 주간과 연계한 '로컬&글로벌 데이' 주제 탐구 부스 및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독도 주간과 세계문화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202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학생회와 사회탐구동아리가 중심이 돼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각 학급과 동아리에서도 다양한 주제 탐구 부스를 선보였다.

충원고 도서실이 주관한 '독도는 우리 땅' 학술발표에서는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한 탐구 내용을 공유했으며, 독도 퀴즈 체험 부스에서는 독도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활동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공정무역 설탕을 활용한 달고나 만들기 체험을 통해 공정한 소비의 의미를 살펴보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활동도 마련됐다. 지역 공예 작가 2팀이 멘토로 참여해 천연염색·업사이클링과 소품 공예 부스를 운영했으며, 학생들은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작품을 제작하며 다양한 공예 기법을 경험했다.

학부모와 인근 지역 주민들도 행사에 참여해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교육활동의 성과를 공유했다.

김용창 충원고 교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배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주예성여고, 일상 속 예술 즐기다

탄금홀서 전교생과 교직원 함께 '틈새 버스킹' 개최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교장 지현옥)는 지난달 30일 교내 탄금홀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나도 예술가, 우리가 만드는 틈새 버스킹'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교육청의 학교예술교육 정책인 '나도 예술가'와 연계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한 보컬 무대와 밴드 합주, 자작곡 발표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으며, 학생과 교직원들은 함께 공연을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함께한 사제동행 무대가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에게 사전 공개하지 않은 깜짝 공연으로, 교사가 직접 작곡한 노래를 학생들과 함께 부르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지현옥 충주예성여고 교장은 "예술은 특별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일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괴산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한 '와유!페스티벌' 개최

지역사회와 함께 배움의 성과 공유… 창업 아이템 개발부터 홍보·판매까지



괴산고등학교는 지난달 30일 교내에서 지역 관계자와 학부모, 지역 중학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로 온 마을축제 '와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해 탐구한 내용을 모의창업 활동으로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배움의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의 중심 프로그램인 모의창업 분야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사전 발표회와 토론회를 거쳐 직접 개발한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총 14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지역의 자원과 현안을 창업 아이디어에 접목하고, 상품 개발부터 홍보와 판매,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주요 부스에서는 ▲괴산의 벌꿀과 밀랍을 활용한 제품 ▲감자 전분으로 만든 말랑이 장난감 ▲지역 인구 문제를 주제로 한 보드게임 ▲괴산 고추를 소재로 한 추리 체험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과학 원리를 활용한 음료와 디저트,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 친환경 로봇 체험, 치매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방탈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운영됐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마을배움터 부스에서는 독서 홍보 활동과 함께 괴산고 졸업생이 참여하는 테라리움·유리공예 체험,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 등이 진행돼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배움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괴산중학교 2~3학년과 괴산북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축제에 참여해 고등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자신의 진로와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의창업 부스 운영에 참여한 이서정(2학년) 학생은 "창업 아이템 개발부터 홍보와 판매, 축제 전용 화폐인 '와유 페이' 관리와 정산까지 직접 경험하며 실제 경제활동의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라며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면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유기성 기자 ygs@



드론농구(DRONE BASKETBALL)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WDSF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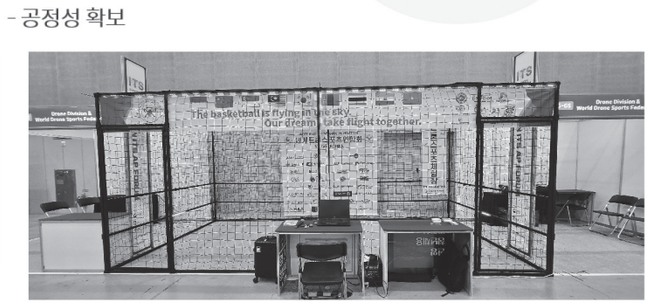
하늘 위의 드론스포츠 "드론 농구"
DRONE BASKETBALL:
A SPORT IN THE SKY

경기 규정 (RULE)

- 팀 구성: 3명의 선수
  - 각 팀 3명으로 구성
  - 실시간 동시 조종
  - 역할 분담 전략 중요
- 경기 시간: 총 3쿼터
  - 쿼터당 2분 진행
  - 쿼터 사이 2분 휴식
  - 작전타임 90초
- 공격 제한 시간
  - 24초 이내 득점
  - 시도 실패 시 공격권 전환
  - 빠른 판단 필요
- 득점 인정 조건
  - 드론이 골대 1/2 이상 통과
  - 위에서 아래로 진입해야 함
- 자동득점 시스템
  - 정확한 점수 측정
  - 실시간 스코어 업데이트
  - 공정성 확보

The Future of Aerial Sports Starts with WDSF 하늘 위 스포츠의 미래, WDSF에서 시작된다
2025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 시 : 2025. 8. 9 - 8. 10
장 소 : 청주 OSCO 2 HALL







The Future of Aerial Sports Starts with WDSF 하늘 위 스포츠의 미래, WDSF에서 시작된다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 장소 청주 OSCO 2 HALL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전화 +82)10-5080-9116, -
이메일 : wdsf9116@naver.com)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rone_sports

WDSF
Woo Hyunho Drone

충주 숭덕학교, 보호자와 함께 일본서 배움의 폭 넓혀

오사카 일원 2박 3일 방문… 다양한 문화·역사 체험활동 전개



충주 숭덕학교(교장 이혜영)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 일원에서 고등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충주시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학습에는 학생 8명과 보호자 8명, 인솔 교직원 7명 등 총 23명이 참여했으며,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와 다양한 문화·역사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학생들은 오사카성을 방문해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 일대를 탐방하며 현지의 생활문화를 경험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며 배움의 폭을 넓혔다.

특히 29일(목)에는 일본 오사카 부립 도리카이 고등지원학교를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고 교육환경을 살펴보며 서로 다른 교육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체험학습에는 보호자 8명이 명예교사로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과 체험활동을 지원했다. 학교는 휠체어 이용 학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현지 특장차량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숙소를 확보하는 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도 힘썼다.

학생들은 보호자와 교직원의 지원 속에서 낯선 환경에 도전하고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며 자신감과 자립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혜영 숭덕학교장은 "이번 국외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전남체육고, 전국체육대회 메달 22개 획득

육상 단거리 혼성 계주 한국신기록 달성, 육상·레슬링 2관왕 탄생



전남체육고등학교(교장 김경우)가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육상, 레슬링, 사이클, 복싱, 펜싱, 태권도, 수구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 등 총 22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지난해보다 금메달을 3개 늘린 데 이어 고등부 한국신기록과 학교 최초 기록까지 세우며 전남 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육상에서는 윤제리·박채경 학생이 여고부 4×400m 계주와 고등부 혼성 4×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여고부 계주에서는 3분51초97을 기록했으며, 혼성 계주에서는 3분29초43으로 고등부 한국신기록을 수립해 전남체육고 육상의 경쟁력을 전국에 알렸다.

레슬링에서는 김예찬 학생이 자유형 86kg급과 그레코로만형 87kg급을 모두 제패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서로 다른 경기 방식인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전남체육고 레슬링 사상 처음으로, 학교 체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사이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왔다. 출전 선수 3명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합작하며 탄탄한 경기력을 입증했다. 육상 도약과 복싱, 펜싱, 태권도, 수구에서도 값진 메달이 이어지며 선수단의 성과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결실에는 학생선수들의 끈기와 도전, 지도교사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지도가 함께했다. 메달 획득 여부를 떠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학생선수의 땀과 노력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대회 기간에는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경기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의 응원도 이어지며 자신의 기량을 펼치는 선수들에게 든든한 힘이 됐다.

김경우 교장은 "금메달 7개와 22개의 메달은 학생선수들의 땀과 지도자들의 헌신이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신기록과 학교 최초 기록을 세운 선수들은 물론, 자신의 한계를 넘어 끝까지 도전한 모든 학생선수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에서 함께 성장하고 더 큰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양길 기자 2580news@daum.net

전남과학고 MINT팀, 주목받는 미래 인재 육성

달빛연합 SW융합 해커톤 대회서 융합상·우수작품 인기상 2관왕 수상



전남과학고등학교(교장 김종삼) 학생들이 전남 지역 고등부 대표로 전국 단위 해커톤 무대에 출전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교내 'Smart-SGT' 프로젝트로 앞서 전남창의융합교육원 해커톤에서 은상을 받았던 팀이, 이번에는 '달빛연합 SW융합 해커톤 대회'에 전남 고등부 초청팀으로 이름을 올리며 또 한 번 도전했다.

출전팀은 정여진·김지안·이다은 학생으로 구성된 'MINT팀'. 이번 대회는 3인 1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겨루는 독특한 구조로 진행된다. 한 명이 발표하는 동안 나머지 두 명은 다른 40개 팀의 발표를 심사하며, 발표자는 라운드마다 바뀌어 팀원 세 명이 모두 돌아가며 발표를 맡는 협업형 방식이다. 발표와 심사를 오가며 서로 다른 팀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경험 자체가 대회의 또 다른 학습 과정인 셈이다.

MINT팀이 이번 무대에 들고 나선 것은 AIoT 기반 실시간 안전 시스템 'Smart-SGT(Smart-Safety Golden Time)'다. 발표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여러분의 안전불감증은 어떠신가요?" 최근 3년간 화재 사고의 60% 이상이 주거공간에서 발생했고, 2025년 화재 건수는 2024년 대비 1.94% 늘어난 38,344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는 초동 대응 지연으로 사망자 14명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남겼다.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인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KOSIS 통계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2020년 4만 건에서 2025년 22만 건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팀은 이 숫자들 속에서 세 가지 구조적 공백을 짚어냈다. 위험 신호가 여러 센서에 흩어져 있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정확한 재실 인원과 상황 신호가 부족해 대피 지원이 더뎌진다는 점, 그리고 신호를 수신해도 확인과 알림 사이에 단절이 생긴다는 점이다. 여기에 교사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순간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까지 더해지면서, 팀은 "안전을 직접 막을 수단"의 필요성에 다다랐다.

해법은 아두이노 우노(R4-WiFi)를 중심으로 10종 이상의 센서를 결합한 AIoT 기반 실시간 안전 가이드 시스템이다. Smart-SGT는 평상시,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 발생 시로 상황을 구분해 각각 다른 '인식-판단-행동-문제정의-안전·윤리' 체계로 작동한다.

평상시에는 교실의 입·출입 인원과 가스 농도, 온습도를 상시 확인하고 인원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등하며, 잔류 인원 현황은 CSV 파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다. 화재가 의심되는 순간에는 화재 감지용 카메라 센서와 가스·온습도 센서의 수치를 종합 판단해 화재 여부를 가린 뒤, 환기팬을 가동하고 경보음과 대피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며 대시보드로 즉시 경보를 띄운다. 만약 사람이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쓰러진 모습'과 '일어난 모습'을 학습해 상태를 판별하고 역시 대시보드를 통해 관리자에게 알린다.

눈에 띄는 대목은 팀이 기술의 완성도만큼이나 '안전·윤리'를 따로 짚었다는 점이다. AI 판단에 이상이 생기면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송해 재확인하도록 설계했고, 사람을 인식하되 영상이나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 우려를 차단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시설·환경 관리)와 제작자(센서·장비 작동)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두었고, 경보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해 특정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했다.

팀이 꼽은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장점은 '골든타임 최적화'와 'AI 카운팅 기술'이다. AIoT 센서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초고속 경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실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기나 정전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교실 내 잔류 인원과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관리자에게 데이터를 즉각 전달한다는 것이다.

팀의 시선은 교실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향후 전망으로는 건물 내 기존 소방·안전 설비와 연동해 이상 감지 즉시 원격으로 초동 조치가 가동되는 '원패스 시스템',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요구조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API 연동, 그리고 교실을 넘어 가정과 공공장소, 사회적 시설로까지 넓어지는 공간 확장성을 제시했다.

교내 프로젝트로 시작된 Smart-SGT가 전남 대표로 전국 무대에 서기까지, 그 중심에는 묵묵히 기술을 다듬어온 학생들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한 학교의 지지가 있었다.

MINT팀 대표 정여진 학생은 "처음에는 많은 센서연결로 오작동이 다수 발생해 막막했지만,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실제로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발표뿐 아니라 다른 팀들의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역할도 맡는 만큼, 더 넓은 시야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고 전했다.

김종삼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전남 고등부 대표로 전국 단위 해커톤에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만들어낸 Smart-SGT가 보여주듯, 우리 학교는 AI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AI로 우리 곁의 안전을 지키는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밤낮으로 땀 흘려온 MINT팀 학생들에게 깊은 격려를 보내며, 전남과학고가 AI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데 앞장서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2580news@daum.net

순천공업고 전기과, 세계창의로봇경진대회 우수 성과

반도체검사장비 부문 1위 · 반도체이송로봇 부문 3위 수상

순천공업고등학교(교장 고재성) 전기과 학생들이 2026년 10월 8일 개최된 세계창의로봇경진대회(WCRC)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로봇·반도체 분야의 미래 기술 인재로서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기과 2학년 강승신·정태원 학생은 반도체검사장비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1학년 이승수·최원철 학생은 반도체이송로봇 부문 3위에 입상하며 뛰어난 창의력과 기술 역량을 선보였다.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서 쌓아 온 지식과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발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반도체검사장비와 반도체이송로봇은 첨단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전공 역량과 미래 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됐다.

순천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전공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고재성 교장은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려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강승신·정태원·이승수·최원철 학생은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가능성을 보여 주며 학교의 자긍심을 높였다. 순천공업고등학교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도전과 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양만열 기자 2580news@daum.net

전남미래국제고, 국제교류 첫 걸음

독일 막스 아이트 슐레 학생 환영행사 개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교장 이창민)는 지난 10월 28일 학교 도서관에서 독일 막스 아이트 슐레(Max-Eyth-Schule) 방문단 14명을 환영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교류는 세계적인 우수 직업교육 모델로 주목받는 독일 니더작센주의 직업학교인 막스 아이트 슐레의 학생 12명과 교사 2명이 한국을 직접 찾아와,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남미래국제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첫 행사인 환영회는 전남미래국제고 학생들이 준비한 신명 나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활기차게 문을 열었다. 이어 학교장 인사와 양교 소개가 진행됐으며, 두 학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우정을 쌓는 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김대중 교육감, 강진교육지원청 윤영섭 교육장이 참석해 개교 첫해에 열린 국제교류 행사를 축하했다. 방문단은 환영식 다음 날 강진생태습지에서 열리는 '강진교육공생한마당'에 참여해 지역 교육 공동체와 교류할 예정이며, 방한 일정 동안 국어·기계·영어 공동수업을 비롯해 민화 체험, 전남 지역 특성화고 방문 등 다채로운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창민 교장은 "이번 교류가 두 학교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와 배움을 깊이 있게 나누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 소재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공립대안학교이자 글로벌 직업교육 특화 모델로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A.T PROGRAM
(AI +Touch My Dream)
"내 아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검사"

M.I.T
마음지능검사
(Mind Intelligence Test)
① 100가지유형 기질검사 ③ 강점지능검사
② 자기주도학습태도검사 ④ 성품검사

+

M.E.T
마음에너지검사
(Mind Energy Test)
① 유전자지문적성검사
② 학업스트레스검사

+

With You Program
함께라면
(With You Program)
① 진로프로그램 ③ 마음알아주기 프로그램
② 소통프로그램

행복한 가치를 창조하는 교육기업 적성과미래 | 상담문의 1544-3105 | 홈페이지 www.kgatest.com

전북교육청-전주시, 수학으로 교육도시 브랜드 육성

수학문화 활성화와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등 지역 맞춤형 교육협력 과제 모색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전주시와 '2026년 교육감 시군 방문 교육협력 정책간담회'를 열고 수학문화 활성화와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등 지역 맞춤형 교육협력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조지훈 전주시장, 이병도 도의원,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 이강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주지역 251개 학교와 학생 7만 7,263명의 교육 여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할 교육 기반 확충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수학문화 활성화와 '수학특별도시 전주' 조성을 위해 2027년 7~12월 한옥마을 일원과 (가칭)전주수학체험센터에서 수학산책·특별전·체험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수학체험센터는 학생 교육 기능을 우선 보장하면서 가족과 시민이 참여하는 활동도 검토하고, 생활권 수학문화 확산과 수학·인공지능 미래 인재 육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는 청소년 대상 2027년 하반기, 어린이 대상 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대상 7만 2,062명과 연간 54억 7,000만 원 규모로 세부적인 분담안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이 밖에도 학생·청소년 체육 활성화와 학생선수 육성,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통학로 위험요인 개선,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의 전주 개최 건의 등도 다뤄졌다.

천호성 교육감은 "수학문화 활성화와 어린이·청소년 교통 지원, 통학 안전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교육행정 투명·공정성 강화 청렴 조직문화 조성

전북교육청, 부패·비리 근절 특별감사…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비리 근절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인사청탁·계약비리 등 중대한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부패·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도내·외 개인 및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전북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창구는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제보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제보 내용의 신빙성·구체성 및 증거자료 유무 등을 검토해 사안별 특별감사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수집, 관계자 면담, 증거 확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감사 사항은 특혜 채용·부당 전보·승진 비리 등 인사청탁 △입찰 담합·수의계약 특혜·뇌물수수 등 계약비리 △예산 부당집행 및 공금 횡령·유용 등 예산집행 비위 △그 밖에 구체적인 부패·비리 등 비위행위이다.

특히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제보 내용의 유출 방지를 위해 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제보 내용에 대한 보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천호성 교육감은 "부패·비리는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하고,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도민과의 공약 약속 실천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출범… 투명성·책임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9일 제20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공개모집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으며, 앞으로 교육감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심의와 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오전에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제20대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 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약별 추진 내용과 연차별 이행 목표, 재정투자계획 등을 살펴보고 공약 실천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 실천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과 평가를 통해 공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공약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교육청의 중요한 책무"라며 "공약관리위원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약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학교 관리자 대응 역량 강화로 학생 생명 지킨다

전북교육청, 위기학생 조기 발견·대응 역량 강화 관리자 연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관리자의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 750명과 교감 619명 등 총 1,36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학생 징후 파악 및 대처를 위한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학생들의 우울·자해·자살 등 마음건강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마련됐다.

특히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종합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는 송정초등학교 오주봉 교장이 강사로 나서 △학생 자살 현황과 학교가 직면한 마음건강 위기 △학생이 보내는 위험신호 △위기 유형별 대처 방법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자 위기대응 10대 원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먼저 청소년의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 부족, 디지털 환경, 관계 단절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보내는 정서적·행동적 위험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자살 위험 징후가 발견됐을 때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보호자 연락과 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 또한 위기학생 발견부터 보고, 초기 대응, 보호자 통지,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외부 전문기관 연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설명하고, 학교 구성원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개입뿐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 연계, 학교 복귀 이후의 모니터링 등 학생의 회복을 위한 후속 지원도 중요하게 다뤘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 관리자가 중심이 돼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와 가정, 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대응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내는 작은 위험신호도 놓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는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와 회복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희귀질환 의심 학생 발견부터 진단·치료까지

전북교육청-전북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과 '희귀질환 의심 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에서 희귀질환 의심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희귀질환 의심 학생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단 이후에도 학교생활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희귀질환 의심 학생 조기 발견 및 의료연계 △학교 현장 대상 사업 안내 및 홍보 △희귀질환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유전자검사 등 전문 진단 지원 △학생과 보호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희귀질환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보건교사와 특수교육 담당자 등을 통해 희귀질환 의심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간 진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전북권역희귀질환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문 진료와 유전자검사 등 정밀검사를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상담과 사후관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희귀질환 의심 학생 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며, 향후 지원 대상과 협력 의료기관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는 조기 발견과 보호자 상담, 교육청은 진단 연계 및 행정적 지원, 병원은 전문 진료와 치료 연계를 각각 담당함으로써 희귀질환 의심 학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1월부터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희귀질환 의심 학생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 진단 연계 지원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태 기자 kht@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씽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팡,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등 전국서점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한다.
제15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야한다.

전재학의 교육칼럼

가수 지드래곤에게서 배우는 '남다름'의 힘

베트남의 한 천재 소녀가 지드래곤에게서 발견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인간의 자세였다

최근 베트남의 한 천재 소녀가 우리 교육에 던진 시사점은 매우 깊게 다가선다. 호앙 흐엉 지앙 학생은 2026년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 A01 계열에서 30점 만점에 29.75점을 받아 전국 공동 수석에 올랐고, SAT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세계의 전통적인 명문대학들을 비롯해 서울대의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최종 KAIST라는 선택지를 택했다.

9월 학기에 입학하여 놀랍게 디자인된 KAIST 캠퍼스 적응에 익숙해지고 과학 연구에 의지를 불태우는 가운데 그가 주목한 인물 한 사람이 뜻밖에도 초빙교수인 가수 지드래곤이었음을 각종 언론은 보도한 바 있다. 지앙 학생은 지드래곤에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도전 정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묻는다. "과학 영재가 가수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가?"… 매우 의아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답은 간단하다. 창의성에는 전공의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지드래곤은 2024년 KAIST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 임명됐다. KAIST는 그의 대중문화 경험과 창작 역량을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의 융합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후 KAIST와 함께 AI·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작업을 진행했고, 2025년에는 미디어아트와 우주 연구를 결합한 음원 송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과학의 언어로 예술을 상상하고, 예술의 방식으로 과학을 바라본 사례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청소년 교육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지드래곤'이라는 유명인의 이름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듯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태도다.

이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라는 말로 치환하여 이 시대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다시 소환할 필요가 있다.

무리 지은 펭귄들이 얼음 끝에서 바다를 바라본다.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순간 한 마리가 먼저 뛰어든다. 그 한 번의 도약이 무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퍼스트 펭귄은 어떤 학생인가? 정답을 가장 빨리 맞히는 학생이 아니라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다. 실패하지 않는 학생이 아니라 실패를 새로운 배움으로 바꾸는 학생이다. 남보다 앞서가는 학생이 아니라 남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학생이라 할 것이다.

KAIST가 2026학년도 학사과정에서 '창의도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KAIST는 해당 전형을 통해 과학영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 자체에서도 기존의 성취만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잠재력을 바라보는 흐름을 선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은 퍼스트 펭귄 교육이 무모함을 가르치는 것으로 왜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용기와 무모함은 다르다.

지드래곤에게서 청소년이 배워야 할 것은 그가 입는 옷도, 부르는 노래도, 얻은 명성도 아니다.

지드래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이다. 누군가는 음악으로 자기 길을 만들고, 누군가는 과학으로, 누군가는 문학으로, 누군가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야가 아니라 태도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묻는 태도다.

베트남의 한 천재 소녀가 지드래곤에게서 발견한 것은 결국 유명인의 화려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인간의 자세였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남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인가, 아니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인가? 교육은 아이에게 완성된 지도를 건네주는 일이 아니다. 아직 길이 그려지지 않은 백지 한 장을 건네고, 그 위에 자기만의 길을 그릴 용기를 갖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김홍제의 목요칼럼

연필과 스마트폰

"적는다는 것은 기억하는 일이었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잊지 않는 일이었다"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 72색짜리를 선물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머리맡에 놓고서 잠을 설쳤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가난했지만 문구류에 대한 관심과 욕심, 특히 필기구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아주 컸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문구류에 대한 물욕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도구를 발명한 역사이면서 기억을 보존하려는 노력의 역사이다. 필기구의 역사는 망각에 저항하려는 인간의 오랜 분투라고 생각한다. 점토판 문자, 파피루스 위 갈대 펜 글을 지나서 동물의 깃털을 다듬어 만든 깃털 펜이 유럽에서 지식과 권위를 기록하는 도구로 쓰였다. 필기구의 속도만큼 인간의 머리도 점차 빨라졌지만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

16세기 유럽에서는 흑연을 나무에 끼워 쓰는 방식의 연필이 등장했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니콜라자크 콩테는 흑연과 점토를 섞어 굽는 연필 제조법을 개발했다.

19세기에는 만년필이 발전했고, 20세기에는 볼펜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점성이 높은 잉크와 작은 구슬 모양의 펜촉을 결합한 볼펜은 잉크가 번지는 문제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필기를 가능하게 했다.

1960년대에 태어난 나에게 필기구 변화는 역사 연표를 보는 듯한 기분이 있다. 어린 시절 연필을 깎고 공책에 글씨를 쓰던 기억에서 출발해 볼펜으로 시험 답안을 채웠다. 교직에서는 시험지 출제를 철필로 하기도 했다. 이후 컴퓨터 자판과 스마트폰이 손에 익숙해졌다. 인류가 오랜 동안 발전시킨 기록 도구들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압축적으로 바뀐 셈이다.

도구가 바뀌면서 쓰는 행위의 의미도 달라졌다. 연필은 틀린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볼펜은 한번 남긴 흔적에 책임을 져야 한다. 컴퓨터는 수정과 편집을 자유롭게 했고, 스마트폰은 기록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풀어 놓았다.

컴퓨터로 글을 쓰면서 의문이 생긴다. 기록하는 능력이 커질수록 인간의 기억과 사유도 깊어졌을까. 기록의 양과 생각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제 인공지능은 질문에 답하고, 글을 쓰고, 인간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한다. 미래의 필기구는 더 이상 손에 쥐는 물건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를 듣고 생각을 정리하며, 머릿속 구상을 그림과 문서로 바꾸는 지능형 도구가 등장할 것이다.

인간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 수많은 필기구를 발명했지만 정작 자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문장을 써 왔을까. 상대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적다 보면 말의 속도와 표정, 잠시 멈추는 침묵까지 마음에 들어왔다. 적는다는 것은 기억하는 일이었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잊지 않는 일이었다.

젊은 날에는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록했다. 삶의 후반에 접어든 지금은 무엇을 더 많이 쓸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비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삶의 아픔을 통과하지 않은 문장이 고통받는 사람을 얼마나 깊이 위로할 수 있을까.



▣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교육칼럼

대화가 머무는 자리, 공존이 자라는 배움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깊은 대화의 갈증을 겪고 있다. 마치 적을 대하듯 막말이 오가기 일쑤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마주할 때 다름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배타적인 시선으로 선을 긋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풍경이 적지 않다.

디지털 알고리즘이 엮어낸 익숙한 정보 속에서 나와 같은 목소리만을 편안히 소비하며,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를 잃어가기도 한다.

더욱 마음이 쓰이는 것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갈등의 그늘이 아이들의 맑은 배움터인 교실 안으로도 조용히 번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최근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숏폼 및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90% 안팎에 이르며, 이는 자극적인 편향 정보와 거친 표현에 노출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래 집단 사이의 대화에서 상대를 배려하기보다 자극적인 언어가 스스럼없이 오가고, 교실의 토론 수업마저 서로의 생각을 보태어 지혜를 모으기보다 상대를 말로써 이겨야 하는 경쟁의 자리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갈등을 조율하고 품어내는 민주적 감수성을 어디서부터 길어 올려야 할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통계표 위의 숫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배움의 터전이자, 타인의 온기를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는 작은 사회다. 민주주의는 제도나 규범 이전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마음을 맞추어 가는 성숙한 태도 위에 꽃을 피운다. 배움의 공간에서부터 '경청과 배려의 문법'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까닭이다.

이를 위해교실 안에서의 '숙의(熟議)형 대화 교육'은 매우 필요한 교육적 접근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토론 교육이 옳고 그름을 가르고 상대를 설득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상대의 생각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는 '마음 모음형 대화'로 나아가야 한다.

작은 학급 규칙을 정하거나 일상의 갈등을 마주할 때, 아이들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배려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따뜻한 경험을 쌓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참과 거짓, 편향을 가려내는 '비판적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길러주어야 한다. 눈길을 끄는 자극적인 문구의 의도를 차분히 짚어보고, 나만의 닫힌 방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기능적 숙련을 넘어, 보이지 않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디지털 시민의 품격을 함께 다듬어 가야 한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정신을 기리는 격언 중에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존중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머무는 자리를 온전히 지켜주는 포용에 있다.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교실이 승패의 장이 아닌 따뜻한 대화가 머물고 아름다운 공존이 자라나는 배움터가 되기를 소망한다.



▣ 박진우
◇ 교육학 박사
◇ 부산 칠암초등학교 교감

최윤용의 100세 칼럼

암 수술부터 척추·관절 수술까지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돕는 '조기 재활(ERAS)', 침구 치료의 결합으로 완성하다

〈지난호 이어서〉 아울러 대장직장 수술 환자 1,56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는 침전기자극술 이 장 기능 회복뿐 아니라 술후 2~3일째 통증과 전체 합병증 발생률을 29% 낮추고 입원기간을 1.22일 단축시켰으며, 위장관암 수술 환자 4,019명(43개 연구) 대상 네트워크 메타분석에서는 가스·배변 회복에는 침전기자극술 이, 장음 회복에는 평자법이, 복부 팽만·설사 완화에는 이혈 피내침이, 전반적 임상 유효율 향상에는 쑥의 정유·플라보노이드·다당체와 온열 자극이 결합된 뜸 치료가 각각 1위를 차지해 증상별 맞춤형 한의 치료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둘째, 전신마취 후 구역·구토 제어 및 주요 장기 보호 효과입니다. 전신마취 환자 7,372명(50개 연구)을 망라한 네트워크 메타분석에 따르면, 경혈전기자극 치료와 항구토제 병용이 전체 구역·구토 예방 1위를 차지했고, 경혈 수기치료와 항구토제 병용이 오심 예방 1위, 침전기자극술 과 항구토제 병용이 구토 억제 및 항구토제 요구량 감소 1위로 확인되어 약물 단독 요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심장 수술 및 관상동맥 중재술 전후 내관(PC6)·극문(PC4) 침전기자극술 자극은 심근 손상 지표인 트로포닌과 CRP를 낮춰 중환자실 체류기간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노인 척추 수술 시 백회(GV20)·족삼리(ST36) 침 치료는 뇌 손상 및 염증 지표인 S100β와 IL-6를 감소시켜 수술 후 인지기능장애를 예방하는 뇌 보호 효과를 발휘합니다.

셋째, 정형외과 관절 치환술 및 척추 수술 후 근골격·신경 재활 효과입니다.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 2,128명(28개 연구) 네트워크 메타분석에서 혈해(SP10)·양구(ST34)·독비(ST35)·양릉천(GB34)·족삼리(ST36) 등을 활용한 침전기자극술, 온침, 뜸 치료는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신문·피질하·슬관절 이혈 지압은 무릎 관절 가동범위(ROM) 회복에 가장 탁월했고, 침전기자극술은 관절 강직(WOMAC stiffness)과 생화학적 염증 지표 개선에 가장 우수했습니다.

퇴행성 요추 수술 후 재활에서도 침치료는 통증 점수와 기능장애 지수(ODI)를 유의하게 낮추었으며, 부침(FSN)은 시술 1시간 내 즉각적인 진통과 24~72시간 내 광배근·대둔근·요추 주위근 경직 완화를 이끌어냈고, 협침과 세레콕시브 병용은 술후 3일과 7일째 염증 수치(CRP, IL-6)를 약물 단독보다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배꼽침(제침)과 기해(CV6)·관원(CV4)·족삼리(ST36) 온침 병용은 수술 후 6개월 시점까지 난치성 잔여 하지 저림과 신경전도 속도를 우수하게 회복시켰습니다.

5.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재활 수칙 및 자가 관리 전략 -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치료와 더불어 환자 스스로 최신 지침에 근거한 자가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전 금식 최소화 및 탄수화물 보충: 과거처럼 자정부터 무조건 굶는 것은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과 근육 이화작용, 갈증 및 술후 구토를 악화시킵니다. 위 배출 지연 질환이 없다면 수술 6시간 전까지 가벼운 식사를, 수술 2시간 전까지는 맑은 물이나 복합 탄수화물 음료를 섭취하여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보존하고 정상 체액량과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에 유리합니다.

-조기 구강 식이와 껌 씹기 및 능동적 조기 보행: 수술 후 가스가 나올 때까지 굶기보다 의료진의 지도하에 수술 당일 또는 24시간 이내에 조기 경구 영양 섭취를 시작하고, 식후 하루 3회 껌을 씹어 미주신경 반사를 통한 장운동을 자극해야 합니다. 또한 정맥 수액관과 소변줄을 조기에 제거한 뒤 하루 8회 이상 병실을 걷고 식사 시 침대 대신 의자에 앉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침상 밖에서 생활하는 능동적 보행이 장마비와 근위축, 혈전증을 막는 핵심입니다.

-침 활용 "수술 후 재활치료' 시 알아둘 점: 침 치료 시 느껴지는 뻐근함, 무거움, 저릿함이나 침전기자극술 후 시술 부위의 일시적인 팽만감은 신경섬유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득기(得氣)' 반응이므로 과도하게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침구 치료 관련 부작용은 경미한 피하혈종 등에 그치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서도 출혈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심장박동기(Pacemaker) 등 체내 전기 자극기기를 이식한 환자나 극심한 쇠약 상태의 고령 환자는 반드시 시술 전 한의의료진에게 자신의 기저질환과 복용 약물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수술 후 재활은 손상된 조직을 아물게 하는 것을 넘어 흐트러진 자율신경과 면역, 근막의 질서를 바로잡아 삶의 활력을 되찾는 전인적 치유의 여정입니다. 통합적 관점의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주요 임상 연구를 통해 검증된 과학적 한의 침구 재활 치료의 조화를 통해, 수술 후 통증과 장마비의 두려움을 넘어 건강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최윤용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주)으뜸생약 대표이사

국무총리상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 정부 조달청장 표창 |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 녹색인증 유공포상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APEC 2025 정상회의장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옥외 LED 전광판

조달청 우수제품 | 조달청 혁신제품 | 성 능 인 증 | GS인증 1등급 | 녹 색 기 술 인 증 | 환 경 표 지 인 증 | 산업융합혁신품목 | 우 수 발 명 품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 · 납품 · 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KSYS
'최첨단 SMT라인 보유'
미세피치 전광판 생산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700건 이상 구축'

15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 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NOVASTAR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SMT 라인


아웃도어 라인


어셈블리 라인


에이징룸

학교 설치 레퍼런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온양한올중·고등학교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



천안고등학교 시청각실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삼성여자고등학교 강당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홍성 홍북초등학교 입구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KSYS
대표전화
1600 - 6187

[전국 및 글로벌 지사 · 공장 · 물류]

부 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 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411호
대 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브시그니처 749호
광 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I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 주 | 제주시 서문로 33

미 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 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110호